

2011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1

2012. 10.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범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Invest KOREA는 국가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 부품소재산업, R&D센터 유치 확대를 위하여 일본, 독일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전용공단의 대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유통, 관광·레저,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EU FTA 등 주요 경제권역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의 FTA, 비즈니스 허브인 우리나라를 세계 각국의 IR 활동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소개하며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고,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투자처를 해외로 선회하고 있는 일본 자본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자동차 부품 등 주력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자본 투자유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본사, 상하이에 이어 2011년에는 베이징, 광저우 등에도 중국 투자유치 전담 창구인 '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화권 자본 투자유치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글로벌 우수기술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국내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공동 R&D, 마케팅 등 다중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한 투자 가능성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Invest KOREA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 발행을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과 Invest KOREA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한 Invest KOREA 본사, 해외 투자유치 활동 무역관 직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0월

Invest KOREA 커미셔너 한 기 원

목 차

요약

I.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II . 주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부품소재
2. 항공 · 방위
3. 자동차부품
4. 신재생에너지
5. BT (Bio Technology)
6. 방송 · 통신
7. 관광레저 · 지역개발
8. 물류 · 유통
9. 금융/M&A

III.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국경제 기여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의 주요 특징

IV. Invest KOREA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여

1. 투자유치 실적
2. 프로젝트 발굴 실적
3. 주요 분야별 투자유치 활동 실적
4. 투자가 행정지원 서비스 실적
5. 외국인투자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실적
6. 투자가 생활정책 지원 실적
7.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실적

요 약

2011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 1조 3,090억 달러(전년 대비 16%증가) (UNCTAD, '11.1.17)
 - 선진국의 FDI 규모는 7,4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
 -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840억 달러이며, 특히 중국은 지난 해 FDI 순유입액이 1,240억 달러로 미국(2,269억 달러)에 이어 2위 기록
-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136.7억 달러(전년 대비 4.6% 증가) (신고기준)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작년 최대 실적이었던 130억 달러 초과 달성
 - 선진국(EU, 미국, 일본) 및 중화권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미, EU FTA의 영향으로 아시아의 FTA,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가 높다는 평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US\$백만,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건수	3,560	3,744	3,131	3,108	2,707
신고금액	10,515	11,711	11,484	13,071	13,674
도착금액	7,853	8,373	6,725	5,417	6,550

자료원 : INSC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 1. 부품소재**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경기침체,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사태 등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첨단 화학소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일본 자본이 엔고 및 전력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처로 발길을 돌리며 대한민국 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됨
- 2. 항공방위** : 항공방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한국의 경쟁국 대비 낮은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투자분야 또한 제조업 보다는 항공기 정비, 교육 중심의 투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3. 자동차부품** : 국내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 진출 외국 부품업체들의 추가투자과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외국 부품업체들의 한국 진출도 점차 증가세를 보임
- 4. 신재생에너지**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에 따른 직접 지원제도 축소에 따라 2010년 대비 투자유치 금액이 줄어들었으나, RPS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가 예상되어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5. BT** : 기술 발전이 필요한 BT 분야는 첨단 복합의료 단지조성, 임상실험규정, 약가정책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기업 기술이전이 용이한 JV위주의 투자유치를 시도

6. 방송통신 : 방송통신 산업 투자유치는 국내 강점을 활용한 테마주형 산업 위주의 활동 전개했으며, 클라우드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 기술기업 유치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활용한 투자유치를 유도함

7. 관광레저 · 지역개발 : 2011년도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 133개국 중 32위(세계 경제포럼, WER)로 문화자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2011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136.7억 달러로 서비스 산업 실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8. 물류 : 우리나라 제조업, 유통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우리나라 8.48%, 일본 4.77%)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9. 금융/M&A : M&A 형 투자유치는 2011년 19.7억 달러로 2010년 총 투자 유치액의 15.4%에서 14.4%로 비중 감소되었음. 2011년의 경우 대형 M&A 2건*이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금액의 70.5%를 차지

* Seagate Technology PLC-삼성전자(HDD사업부문, 1.5조 원), Mahindra and Mahindra Limited-쌍용자동차(0.4조 원)

■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국경제 기여['10년도 기준]

- **매출, 고용** : 매출은 전 산업(금융 제외) 221조 원, 산업별로는 제조업 161조 원, 비제조업은 60조 원으로 국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며, 고용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 전 산업(금융 제외) 57조 원으로 산업별로는 제조업 30조 원, 비제조업 27조 원으로 2008년에 비해 부가가치 규모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입[제조업]** : 외투기업 중 제조업의 총 수출액은 62.6조 원이며, 총 수입액은 55.5조 원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수출입이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모두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수익성, 안정성** : 수익률은 전체 산업의 2009년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p, 매출액순이익률은 2.0%p,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2%p 증가함. 안정성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비교하여 자기자본비율 1.01배, 부채비율은 0.99배 수준으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배당성향** : 생산성에 있어 외투기업의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노동자 수)은 국내기업에 비해 2.53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배당률은 0.56배 낮고, 배당성향은 1.31배 높게 나타나 외투기업이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투자동기** : 내수시장 진출, 투자 자산가치 등이 주요 대한 투자 동기로 나타남

■ Invest KOREA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여

- **IK의 투자유치금액** : 88.9억 달러(전년 대비 12.7% 증가, 신고기준)
- **IK의 투자유치기여도** : 65%(전년 대비 5.0% 증가)

IK 투자유치 실적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10,515	11,711	11,484	13,070	13,674
IK 투자유치 실적 (신고기준)	4,741	4,929	7,393	7,892	8,892
IK 투자유치 기여도	48.0	54.3	64.4	60.4	65

주 : '07년~' 08년의 경우 FDI 유치액 중 금융·보험 M&A 제외 후 기여율 산정
 자료원 : INSC, Invest KOREA

- **IK의 프로젝트 관리 실적** : 1,180건(전년 대비 7.8% 증가)

IK 발굴 프로젝트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관리 프로젝트 수(건)	644	810	863	1,094	1,180

자료원 : INSC, Invest KOREA

- **IK의 주요 분야별 투자유치 활동**

- **부품소재** : 지자체 합동 대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TFT(6월), 일본 2차 전지 소재 투자 유치 (9월), 도코한국산업전 연계 투자유치설명회(9월), 히로시마 IR 연계, 대일 투자 유치 로드쇼(11월), 대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TFT(12월) 등
- **자동차 부품** : 경북 합동 북미 자동차 부품 투자유치 TFT(4월), 대일 투자유치 TFT 파견(6월), EquipAuto 2011 파리 IR(10월), 히로시마 자동차부품 투자 유치 IR(12월) 등
- **항공·방위** : 파리 에어쇼 연계 투자유치 TFT 파견(6월), 하반기 항공MRO 아시아 투자유치 TFT 파견(12월) 등
- **BT** : 바이오메디컬 미주 공동 투자유치 TFT(6월), 대구시 일본 TFT (9월), 경기도 구주 TFT (10월), 대구시 구주 TFT (11월) 등
- **정밀화학** : 유럽 정밀화학 투자유치 TFT(5월), 일본 2차전지 소재 투자유치 IR(9월), 화학 전자재료 구주 TFT(11월) 등
- **신재생에너지** : 그린산업 투자 신고식(1월), Wind Power Expo 2011 연계 투자설명회(9월), 태양광 투자유치 TFT(11월) 등
- **R&D센터** : Solvay社 첨단소재 R&D센터 설립(5월), 글로벌산학협력형 유럽거점대학 선정 (6월), 구주 공동RnD 프로젝트 유치 TFT(7월), 클러스터형 국제공동 R&D TFT(10월) (GAPS) GAPS with DOW Chemical(1월), GAPS with BASF(8월), GAPS with P&G(12월), GAPS with GAMESA(12월)

- **물류·유통** : 미주지역 물류IR(3월), 구주지역 물류 IR(6월~9월), 중국지역 물류 IR(10월)
- **지역개발/관광레저** : 지역개발 일본 IR(1월), 호주지역개발 IR(2~3월), 관광개발 중국 IR(4월), 북미 지역개발 IR(10월) 등
- **금융/M&A** : 국내 최대 사모펀드/벤처캐피털 포럼인 "Korea PE/VC Cleantech Forum 개최 (11월), 실리콘밸리 VC 투자유치사업(10월),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 투자 유치 사업 (런던, 취리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
- **신흥시장** : 2010년 본사, 상하이에 이어 2011년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전담 창구 기구인 'China Desk' 설치, 북경 IR(5월) 등 화북, 화동, 화남 지역으로 월별 투자유치 IR/TFT 추진. 한-아부다비 투자협력포럼(5월), UAE 철도 프로젝트 상담회 개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최초 국가 IR(6월) 시행, 뭄바이 IR(11월) 등
- **투자가 행정지원 서비스**
 - 직접민원처리 실적 : 3,645건(전년 대비 8.5%감소)
 - 출입국 관련 9종 3,634건, 법인설립등기 지원 9건, 사업자등록 1건, 현물출자 완료 확인 1건 등
 - 외국인투자신고 접수현황 : 2,707건(전년 대비 12.9% 감소), 136억 7천만 달러(전년 대비 4.6% 증가)
 - * IK접수 374건(3.3% 증가), 74억5천만 달러(14.5% 감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현황 : 13,730개사(전년 대비 0.4%감소)
 - 9,657개가 법인 형태이며, 개인 기업 4,073개사. 감소 요인은 폐업 및 정산기업 직권 말소로 인한 600여 개사 감소가 주요 원인임
- **외국인투자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 신규업체 : 14개사, 졸업업체 : 18개사 (2011년까지 110개 기업이 이용, 93개사 졸업)
 - 인큐베이팅 시설이용 기업 투자신고액 : 71백만 달러
 - * 2011년까지 누적 투자신고액 2,769백만 달러
- **투자가 생활 정착 지원** : 전문컨설팅 및 생활상담 서비스 : 4,379건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 고충처리현황 : 403건(전년 대비 4.7% 증가)
 - 조세세무 43건, 투자 인센티브 76건, 절차 31건, 관세무역 26건, 노무인사 27건 등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UNCTAD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조 5,240억 달러로 전년도 1조 3,090억 달러 대비 16% 증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확산된 전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2005~2007년의 위기 전 수준으로 상회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초국적기업의 고수익 및 개발도상국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인한다.

주요 경제권역별 FDI 실적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2011년 FDI 규모는 7,480억 달러로 2010년 6,190억달러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중국·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은 2011년도 FDI 규모가 6,840억 달러로 2010년도 6,170억 달러 대비 12%가 증가하며 세계 FDI 순유입액의 45%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해 FDI 순유입액이 1,240억 달러에 달해 미국(2,269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FDI 유입 증가는 아시아권에서의 10% 증가세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내 16% 증가에 의한 바가 크다. 체제전환국으로 유입된 FDI는 2011년도 920억 달러로 2010년 740억 달러 대비 25% 증가하였다. 반면, 아프리카로의 흐름은 감소세가 미미하긴 하나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유럽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EU의 FDI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1] 세계 지역 및 주요경제권 외국인직접투자 동향(FDI Flow)

[단위 : US\$십억, %]

지역 및 주요경제권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2005~2007년	2009~2011년				
세계	1,473	1,344	1,198	1,309	1,524	16.4
선진국	972	658	606	619	748	20.8
유럽	646	365	357	318	421	32.4
북아메리카	253	218	165	221	268	21.3
개발도상국	443	607	519	617	684	10.9
아프리카	40	46	53	43	43	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16	185	149	187	217	16.0
아시아	286	374	315	384	423	10.2
체제전환국	59	79	72	74	92	24.3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 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11년도 세계 국가 간 M&A는 30억 달러 이상 대규모 M&A가 2010년 44건 대비 62건에 달하였으며 전체 규모가 2010년 3,440억 달러 대비 52.9% 증가한 5,2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자산 가치 및 매수자의 구매력(Financial Capacity)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경제권역별 M&A 실적을 살펴보면 동유럽 및 CIS 지역이 2010년 대비 무려 633% 증가한 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 연방에서 천연자원 분야의 대규모 M&A 실적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대형 M&A 투자가 반영되면서 각각 2010년 대비 61.6%, 60.2%가 증가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M&A 규모가 2010년 대비 49.9% 상승한 550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1-2] 세계 지역 및 주요경제권 국가 간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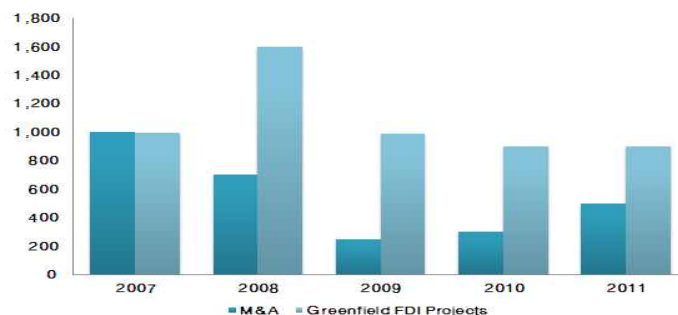
[단위 : US\$십억, %]

지역 및 주요경제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세계	706.5	249.7	344.0	525.9	52.9
선진국	581.4	203.5	257.1	409.7	59.4
유럽	273.3	133.9	125.0	200.3	60.2
미국	227.4	40.1	83.0	134.1	61.6
일본	9.3	-5.8	6.9	5.0	-27.5
개발도상국	104.8	39.1	82.4	83.2	1.0
아프리카	21.2	5.1	8.1	7.2	-11.1
남아메리카	15.5	-4.4	28.4	20.7	-27.1
아시아/오세아니아	68.2	38.3	36.9	55.3	49.9
동유럽 및 CIS	20.3	7.1	4.5	33.0	633.3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 Towards a New Generation of Investment Policies

아직까지는 여전히 Greenfield 투자 규모가 M&A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Greenfield 투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최근 201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M&A형 투자는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1] 세계 M&A, Greenfield FDI 프로젝트 투자 비교



■ 2012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UNCTAD에 따르면, 2012년도의 세계 FDI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 1.6조 달러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와 주요 신흥국의 낮은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M&A 및 Greenfield 투자액이 2012년의 첫 5개월 간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이러한 추세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UNCTAD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 FDI 중기전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충격이 없다면 FDI 흐름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및 2014년에는 각각 1.8조 및 1.9조 달러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1-2]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2012년 FDI 유입 증가 여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모두에 있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아프리카의 FDI 유입이 완만하게 회복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지역 및 라틴아메리카 내 FDI 성장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흐름은 2012년에 더욱 성장하여 2014년에는 2007년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정치적 리스크, 국가부채 심화 등 서로 다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FDI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요인들을 투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모시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11년도 우리나라 FDI의 특징

- ① 고부가 서비스산업 투자 증가, 제조업 투자 감소
- ② Greenfield형 투자 소폭 증가, M&A형 투자 정체
- ③ 선진국(EU, 미국, 일본) 및 중화권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지역의 투자는 감소
- ④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외국인투자 편중 현상 심화

2011년 우리나라의 FDI 신고금액은 136.7억 달러로 2010년 130.7억 달러 대비 4.6%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 이어 사상 최대 FDI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특히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57.4%, 미국 20.2%, 일본 9.6%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한(對韓) 투자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증하고 있다. 중화권의 경우에는 21.6% 증가하였으나 중동 등 기타 지역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공장, 사업장 설립 등 생산성 파급효과가 큰 Greenfield형 투자가 2010년 대비 5.8% 증가하며 전체 FDI의 85.6%를 차지하였다. 2011년 Greenfield형 투자는 116.9억 달러, M&A형 투자는 19.7억 달러로 집계됐다.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도 서비스업 투자가 72.7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고, 금융·보험 분야의 투자가 81.5%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투자는 화공, 기계장비, 전기전자 분야의 증가에도 운송용 기계, 의약 등이 크게 줄면서 전년대비 15.1% 감소한 66.6천만 달러에 그쳤다.

투자지역에서의 FDI 수도권 편중 현상은 다소 심화되었다. 이는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 투자비율이 전체 43.1%로 전년 대비 6%p 늘었다.

[표1-3]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건, US\$백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건수	3,560	3,744	3,131	3,108	2,707
신고금액	10,515	11,711	11,484	13,071	13,674
도착금액	7,853	8,373	6,725	5,417	6,550

자료원 : INSC

■ 지역별 투자유치 추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20.2%, 9.9% 증가하여 23.7억 달러, 22.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EU로부터의 투자도 4.2% 증가하여 50.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1-4]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별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미 국	1,328	11.3	1,486	12.9	1,974	15.1	2,372	17.3	20.2
일 본	1,423	12.2	1,934	16.8	2,083	15.9	2,289	16.7	9.9
E U	6,339	54.1	5,297	46.1	4,831	37.0	5,033	36.8	4.2
기 타	2,621	22.4	2,767	24.1	4,183	32.0	3,980	29.1	-4.9
전 체	11,711	100	11,484	100	13,071	100	13,674	100	4.6

자료원 : INSC(신고기준)

■ 산업별 투자유치 추이

2011년도 FDI 업종별 특징은 서비스업 투자의 증가와 제조업 투자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1차 산업이 1,300%의 증가율을 보이긴 하였으나, 투자액이나 전체 FDI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15.3%의 증가세를 보이며 72.7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전체 FDI내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2011년 전체 투자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2010년도에 큰 상승세를 보였던 제조업 투자는 운송용 기계 분야가 87% 급감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1% 감소세를 보이며 56.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다.

[표1-5]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차산업	1	—	16	0.1	4	—	56	0.4	1,300.0
제 조 업	3,007	25.7	3,725	32.4	6,658	50.9	5,657	41.4	-15.1
(운송용기계)	(346)	(3.0)	(625)	(5.4)	(2,483)	(19.0)	(324)	(2.4)	(-87.0)
(전기·전자)	(1,058)	(9.0)	(1,798)	(15.6)	(1,561)	(11.9)	(1,746)	(12.8)	(11.9)
(화 공)	(572)	(4.9)	(204)	(1.8)	(927)	(7.1)	(1,831)	(13.4)	(97.5)
(기 타)	(1,031)	(8.8)	(1,098)	(9.6)	(1,687)	(12.9)	(1,756)	(12.8)	(4.1)
서비스업	8,387	71.6	7,594	66.1	6,302	48.3	7,270	53.2	15.4
기 타	316	2.7	149	1.3	107	0.8	690	5.0	544.9
총 계	11,711	100	11,484	100	13,071	100	13,674	100	4.6

주 : 1차산업은 농·축·수산·광업, 기타는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 형태별 투자유치 추이

2011년도 형태별 FDI를 살펴보면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여 19.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Greenfield형 투자는 5.8% 증가하여 1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1-6]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별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M&A형	4,432	37.8	3,375	29.4	2,017	15.4	1,971	14.4	-2.2
Greenfield형	7,280	62.2	8,109	70.6	11,055	84.6	11,703	85.6	5.8
(공장 설립)	(1,153)	(9.9)	(5,421)	(47.2)	(5,948)	(45.5)	(4,178)	(30.6)	(-29.8)
(사업장 설립)	(6,127)	(52.3)	(2,688)	(23.4)	(5,064)	(38.7)	(7,525)	(55.0)	(48.6)
전 체	11,712	100	11,484	100	13,072	100	13,674	100	4.6

주 :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는 공장설립 이외에 영업시설 등을 포함하므로 공장설립 규모와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 규모는 다름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 규모별 투자유치 추이

2011년도 FDI 규모별 투자추이를 살펴보면 1억 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전년 대비 16.5% 감소하여 62.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도에 감소세를 보였던 1억 달러 미만 투자는 32.6% 증가하여 74.6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다.

1억 달러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은 전체의 45.5%를 차지하였고, 1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중형 투자의 비중은 39.1%를 점유하였다. 2010년과 달리 1억 달러 미만의 투자 비중이 54.5%로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1-7]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별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억 달러 이상	5,239	44.7	6,958	60.6	7,450	57.0	6,218	45.5	-16.5
1억 달러 미만	6,472	55.3	4,526	39.4	5,621	43.0	7,456	54.5	32.6
(1천만 달러~1억 달러)	(4,580)	(39.1)	(3,023)	(26.3)	(4,140)	(31.7)	(5,349)	(39.1)	(29.2)
(1백만 달러~1천만 달러)	(1,497)	(12.8)	(1,189)	(10.4)	(1,138)	(8.7)	(1,690)	(12.4)	(48.5)
(1백만 달러 미만)	(395)	(3.4)	(315)	(2.7)	(343)	(2.6)	(417)	(3.1)	(21.6)
전 체	11,711	100	11,484	100	13,071	100	13,674	100	4.6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 시점별 투자유치 추이

2011년의 경우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하여 61.3억 달러, 증액투자는 2.5% 증가하여 69.4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편 장기차관의 경우 전년 대비 22.4% 감소한 수치인 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1-8]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시점별 동향

[단위: US\$백만, %]

구 분	2010년					201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연간 증감률
신규투자	370 (24.0)	1,710 (61.2)	856 (29.2)	2,586 (44.6)	5,522 (42.2)	1,024 (51.1)	1,353 (40.3)	1,068 (48.1)	2,680 (44.0)	6,125 (44.8)	10.9
증액투자	1,026 (66.6)	802 (28.7)	1,974 (67.3)	2,963 (51.0)	6,765 (51.8)	952 (47.5)	1,976 (58.8)	934 (42.1)	3,078 (50.6)	6,941 (50.8)	2.6
장기차관	145 (9.4)	281 (10.1)	102 (3.5)	257 (4.4)	785 (6.0)	29 (1.4)	31 (0.9)	218 (9.8)	333 (5.4)	609 (4.5)	-22.4
전 체	1,541	2,792	2,932	5,806	13,070	2,005	3,360	2,220	6,089	13,674	4.6

주 : () 내는 비중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Ⅱ 주요 산업별 외국인투자유치 동향

산업 ① 부품소재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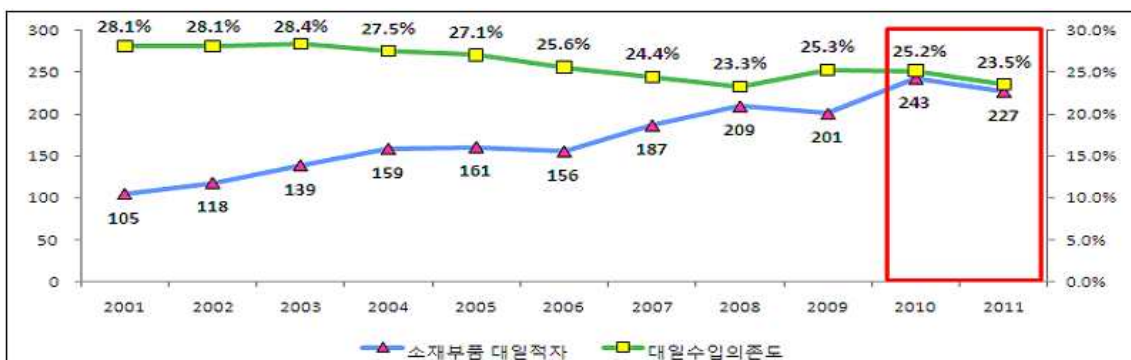
부품소재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로, 제조업 전체 생산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0년 대비 8.2% 증가한 580조 원 규모의 생산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동 산업에 고용된 인구는 125만 명으로 전체 산업의 51%(2009년)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고려할 때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2011년 부품소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562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686억 달러로 전체적으로는 2010년 대비 97억 달러가 증가한 87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부품소재의 수출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핵심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중국에 범용부품소재를 수출하는 산업 내 분업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2011년 기준, 227억 달러의 대일본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흑자는 428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1년 부품소재의 무역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대일무역역조가 개선되고, 대일수입의존도가 완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2-1] 소재부품 대일역조 및 대일수입의존도 추이

[단위: US\$억 달러, %]



* 대일수입의존도: 소재부품 수입 중 대일 수입 비중을 의미

■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부품소재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007년 대폭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품소재산업의 투자유치는 2010년 대비 약 9.1% 감소하였으나, 전체 투자유치 금액의 35%를 넘어서면서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Greenfield형 투자가 많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2-1] 최근 6년간 부품소재산업 FDI 유치 현황

[단위 : US\$백만,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FDI 유치액	3,190	2,353	2,548	3,008	5,283	4,825
증감률	50.2	-26.4	7.9	18.1	75.6	-9.1
전체FDI 중 비중	28.2	22.3	21.8	26.2	40.4	35.3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한국 내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약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TFT-LCD, PDP, DRAM, NAND Flash 메모리 등의 품목을 위한 소재 및 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디스플레이, 로봇, 전기차, 차세대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관련 부품소재 외국기업의 투자가 기대된다.

이러한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 외투기업을 위한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시 외국기업을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을 제안하였고, 이듬해 7월까지 경북포항, 구미, 전북·익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4개 지역이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지로 지정되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및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0년부터 쓰바키모토체인, 존슨컨트롤스, 이시자키프레스 등 해외 유력 부품소재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

■ 한국에 진출한 부품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로 국내 대기업들의 주력품인 LCD,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를 취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TFT 액정용 유리 기판을 제조하는 AFK(Asahi Glass Fine Techno Korea, 아사히글라스의 투자자회사)가

있으며, 이밖에 아반스트레이트 코리아(LCD용 유리기관), 매그나칩 반도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소재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기업으로는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를 생산하는 독일 보쉬와 삼성SDI의 합작사인 에스비리모티브 주식회사가 있다. 2010년에는 화학 소재분야 생산거점 설립 움직임도 나타나며 섬유소재 제조부문에서 에이치씨페트로켄(日Cosmo Oil-韓현대오일뱅크)이 설립되고, 화학축매 제조업체인 알버말케미컬코리아가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LCD 유리기관 제조분야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대규모 증액투자도 이어졌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일본의 유명 정유사이자 전자재료 메이커인 Idemitsu Kousan(出光興産)社は, 경기도 파주에 약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2012년 9월 완공 예정인 동 생산거점에서는 OLED(유기EL)의 재료를 생산하여 한국의 세트 메이커에 공급하게 된다. 디스플레이 관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OLED 관련 대형 텔레비전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이 OLED 시장의 성공여부와 관련 주요 시험무대가 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 한국의 항공방위 산업

2011년 기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949백만 달러이다. 공급분야에서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2,35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4,591백만 달러로 국내생산을 초과하였다. 수요분야에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19 백만 달러이며 내수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5,930백만 달러이다. 우리나라 시장 확대의 관건은, F-X 사업, KHP 사업 초도 양산물량, T-50 계열 후속 양산물량 등 군수사업과 Boeing, Airbus 등 민수부품 수출물량 증가 여부에 좌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 93개사(2010년 기준)의 총 매출액은 6조 원이 넘지만, 매출액 대비 내수비중이 85%에 육박하여 높은 내수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¹⁾ 한국 방위산업체의 수출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영세한 방위산업체 규모, 방산물자 수출경험 부족, 일원화된 의사소통 창구의 부재에 따른 약한 협상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09년 10월 KOTRA는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산업협력 및 민수분야 절충교역, 정부 간 판매, 패키지 딜 마련을 주 업무로 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 방위적인 수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의 항공방위 산업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외국인의 항공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경쟁국 대비 낮은 산업경쟁력으로 인해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투자분야 또한 제조업 보다는 항공기 정비, 교육 중심의 투자가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2012년에 F-X사업이 예정되면서 주요 항공 기업들이 항공부품제조, 완제기 조립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민수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표2-2] 최근 5년간 항공산업 FDI 유치 현황

[단위 : US\$백만,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FDI 유치액	0.69	32	0.5	10	0.5
증감률	-40%	4,524%	-98%	2,009%	-50%

주 1) 제조업-항공산업(KSIC 313) 투자에 한함

2) 2010년의 경우 INSC에 신고업종이 다르게 기재된 항공산업분야 투자유치를 포함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1) 방위사업청 통계자료

정부에서는 항공방위산업분야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를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9년에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절충교역 물량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IK는 절충교역 외국인투자유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항공방위분야의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하에, 투자설명회, 방한투자가 상담, 투자사절단 파견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가의 관심도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다. 향후 동 제도가 항공방위산업의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자 향후 투자유치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한국에 진출한 항공방위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에 진출한 항공방위 분야 기업은 다국적 기업인 EADS, 프랑스의 탈레스, 미국의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등 1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이 활동 중이다. 2000년 2월 삼성전자와 탈레스사가 1:1 합작투자로 설립한 삼성탈레스는 최근 4년간 2배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IT-방산기업 간 투자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보잉사가 16%의 지분 투자한 휴니드테크놀로지스社 역시 안정적인 국내 방위사업 참여와 보잉의 첨단 통합방위시스템 기술제휴 효과를 보이며 투자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2010년도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社와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 MRO센터설립을 위해 JV 투자를 진행하였다. 또한 소해함(Minesweeper) 제작 업체인 GMB USA는 KOTRA와 방위사업청의 지원에 따라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절충교역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였다. 2011년에는 보잉사가 조종사 트레이닝센터 설립으로 5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보잉트레이닝서비스스코리아(BTSK)는 미국 보잉사에서 100% 출자한 회사로 2002년 한국에 설립되었다. 한국·중국·대만·몽고 지역에 위치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훈련교관 180여명을 파견, 항공기 유지보수와 조종사·승무원 비행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TSK社는 신기종 항공기가 증편됨에 따라 항공기의 발전된 기술을 알리고 정교한 조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항공운항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2014년 건설 예정인 센터는 대당 2,500만 달러 상당의 전체비행시뮬레이터 16대를 갖추고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트레이닝 서비스사업이 예정되어있다. 보잉사는 항공운항훈련센터는 연평균 3000여명의 조종사가 훈련할 수 있도록 미국 보잉 본사의 훈련교관 200여명을 파견하고 신규 고용으로 센터 운영 요원 350여 명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건 관련, 2002년, 2011년 등 총 10여 년에 걸쳐서 3차례 투자 도착이 이뤄졌으며 향후 보잉사의 사업 확장에 따른 증액 투자가 예상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2011년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진, 쌍용자동차의 정상화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해였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465만 7천대의 국내생산량을 기록하여 2010년도 427.1만대 대비 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내 완성차업체들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대우버스만이 전년 대비 생산이 감소하고, 쌍용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된 후 41%가 넘는 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표2-3] 최근 4년간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 국내 생산현황

(단위 : 대,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
현대자동차	1,673,580	1,606,879	1,743,375	1,892,254	8.5
기아자동차	1,055,152	1,137,176	1,416,681	1,583,921	11.8
한국GM	813,023	532,191	744,096	810,854	9.0
르노삼성자동차	187,947	189,831	275,269	244,260	-11.3
쌍용자동차	81,445	34,703	80,067	113,249	41.4
대우버스	4,866	4,037	3,214	3,210	-0.1
타타대우	10,669	8,131	9,039	9,346	3.4
합 계	3,826,682	3,512,948	4,271,741	4,623,912	8.2

자료원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부품 산업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현대-기아자동차는 2011년,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해있던 외국 부품업체들의 증액 투자와 새로운 거래 활로 개척을 필요로 하는 외국 부품업체들의 진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부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진출한 상태이나, 중소 부품업체들은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업체의 숫자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는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M&A가 함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2-4] 최근 5년간 자동차부품산업 FDI 유치 현황

(단위 : US\$백만,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FDI 유치액	333	288	88	2,079	189
증감률	85	-13	-69	2,263	-90

주 : 제조업-운송기계-자동차부품(KSIC 30) 투자에 한함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우리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소형 프라이드, 준중형 아반테 블루, 중형 소나타, K5에 이르는 하이브리드카의 라인업을 완성하여 일본의 토요타, 혼다와 경쟁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개발을 병행하여 배터리 및 모터 등의 핵심부품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GM은 프랑스와 미국 본사에서 전기차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100% 전기차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전기차 개발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세계 100대 부품업체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다이모스 등 4개사가 등재되어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성장도 눈에 띈다.

■ 한국에 진출한 자동차부품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분의 규모 있는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이미 투자의 형태나 기술협력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Automotive News조사) 중에는 새로이 진입한 중국업체를 제외하고는 10개 기업만이 국내에 미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진출 업체는 아이신제이키, 도요다방직, 도요다합성, 코이토(이상 일본), 마제티 마렐리(이탈리아), 페구폼, KSPG AG, 카우텍스 텍스토론(이상 독일), Flex-N-Gate(미국), Nemak(멕시코) 등이다.

2011년에는 일본의 중견기업 야스나가(주)社가 한국에 진출한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특징상 대기업이 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였으나 야스나가와 같은 중견기업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일본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야스나가(주)가 2011년 9월 5일 전북 익산시 삼기면에서 기공식을 하고 2012년 3월 완공하였다.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 공단에 입주하는 한국야스나가(주)는 총 투자금액 659억 원을 들여 8만2천400㎡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야스나가는 이 공장 운영을 위해 직접 1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엔진부품 업체인 야스나가는 1923년 창업하여 1949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도요타와 현대·기아, 미쓰비시, 다임러크라이슬러, 지엠 등에 커넥팅 로드와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등 엔진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야스나가의 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들의 전·후방효과로 자연스런 기술이전 효과와 지역산업 및 한국자동차산업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산업생산 생산액은 2007년 1.2조 원에서 2010년 8.1조 원으로 약 7.2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55% 수준이다.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은 기업체수는 2.1배, 고용인원 3.7배, 생산액 6.8배, 수출액 7.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2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금액도 3.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2-5] 태양광/풍력시장 성장 현황

산업	변동내역	제조업체(개)	고용인원(명)	생산(조원)	수출(US\$억)
2007		101	3,661	1.2	6.3
2010		212	13,651	8.1	45.4
증가		2.1배	3.7배	6.8배	7.2배

자료원: 녹색성장위원회(2011)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액이 민간투자 규모인 3조 5천억 원을 초과하는 4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규모, 수출액, 고용 등의 산업지표로 볼 때 국내 신재생산업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단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에너지저장,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9대 집중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2008~2013년) 총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발전차액보조금제도(Feed-in-tariff)를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Renewable Portfolio System)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총 투자금액은 약 1억 달러로,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9년 태양광 투자가 대세를 이루면서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투자금액은 최근 6배 가까이 성장한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유럽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아시아, 미주 등의 신 시장 개척을 확대하여 전년대와 비슷한 규모인 약 6.9억 달러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

[표2-6]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외국인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103.7	676.7	689.3	561.9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유치는 정부지원금 등의 정책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 확대 측면에서의 지원정책은 세제지원이 대표적인데,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고 견인해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및 연료 전지 발전 관련 발전차액 보조금 집행규모는 매년 급증함에 따라 2009년부터 체계적으로 축소되다 2012년 완전 폐지가 계획 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기존의 발전차액보조금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RPS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규모는 작년 대비 18.5% 감소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RPS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 되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늘어날 전망이며, 신기술 도입이 전 산업으로 파급되는 외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에 진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에 진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풍력발전 분야의 스페인의 Acciona, 덴마크의 Vestas, 독일의 Korwind, 일본의 NTN Corporation 등이 있으며, 태양광 분야의 경우, 일본의 Sonix Janan, Orix Corporation, Green Tec, 독일의 Solarworld, 미국의 Telio Solar Technologies, 프랑스의 Saint-Gabain 등이 있고, 바이오 가스 분야의 경우 스웨덴의 Scandinavian Biogas Fuels AB, Swedish Biogas International AB, 독일의 Envio Biogas 등이 있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최근 한국에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양광 제조부문 프랑스 생고방사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합작투자한 현대아반시스, 독일 기업인 솔라월드(Solarworld)와 풍력발전단지 분야의 대표기업인 스페인의 악시오나(Acciona)가 있다.

먼저, 500MW 규모의 CIGS 박막전지 생산시설을 설립 중인 현대아반시스는 국내 박막 태양전지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용 부품소재분야 전 세계 3위에 등극한 독일의 솔라월드는 2008년에 전북 전주에 80MW규모의 태양광모듈생산라인을 설치했고, 현재 150MW규모로 확장 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공장에는 총 2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GW규모로 확장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는 스페인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인 악시오나로서 2007년부터 2.3억 달러를 투자하여 경북 영양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6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다. 2012년 완공 예정으로 38MW규모의 영양II 풍력단지를 개발 중이다. 악시오나사는 총 8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총 4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 한국의 BT 산업

세계적으로 BT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시장은 IT시장의 2.3배 규모에 달하며,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국가별 1인당 의료비증가율 OECD 평균 6.7%, 한국 11.6%).

의약품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8.6천억 달러이며, 한국시장은 2010년 166억 달러 규모로 세계 시장의 1.9% 수준이지만, 국내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의 생산은 국내총생산의 1.44%, 제조업 총 생산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의 총 생산규모는 약 15.7조원으로 전년대비 6.2%정도 성장하였으며, 2007~2010년 간 평균 7.6% 증가하였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체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07~2010년 평균 6% 증가하여 총 593개(27.7%)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업체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26,216개사 이다. 2007~2010년간 연평균 수출은 15.3%, 수입은 6% 증가하였지만 2010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총 30.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완제의약품 수입이 56.4%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전문의약품이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퀸박셀주, 헤파박스 등의 혼합백신류와 보툴리눔 독소의약품인 뉴로녹스주 등이 있다.

의료기기 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는 3조 9,0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0%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국내 전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29,711개사의 대부분은 영세 업체였으나, 생산액 100억 원 이상인 의료기기 업체가 2009년 48개사에서 2010년 56개사로 증가하였다. 2010년 수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하였고 수입은 20.1%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약 8.1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 Stent(혈관 폐색 등을 막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것)가 가장 많고, CT, MRI와 같은 고가형 영상 진단기기, 인공 무릎관절 등의 수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의 BT산업 인프라

우리나라 BT 산업의 절대적 시장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아시아 시장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국내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투자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 한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은 2009년 총

404건 에서 2010년 439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그 중 글로벌 임상시험이 48%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연구중심 병원과 임상전문가의 증가, 환자관리 및 메디컬시스템이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최적지로서 BT 산업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논문발표 및 특허 성과 등과 함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의 바이오 산업계 종사인력은 총 2만 2,817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가 36.7%로서 고학력자 위주의 인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과학저널인 NSC(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한국과학자의 생명공학관련 논문이 2009년 21건에서 2010년 28건으로 꾸준히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가별 특허건수 집계 결과, 한국은 9,689건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바이오분야의 미국등록 특허는 2006년~2010년에 520건, 국가별 기술력 지수 166로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

BT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도 주요한 투자 기회가 되고 있다. 2011년 말에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합의로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2011~2019 정부 6,000억 원, 민간 6,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투입)의 출범, 바이오펀드조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과도 가속화 되고 있다. 세부 집중분야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천연물 의약품, BIT융복합 기술과 맞춤형의학 및 재생의학 분야로 특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 한국의 BT산업 투자유치 현황 및 정책

2011년 한국의 BT 관련 산업(의약품/의료용품/기기 포함, 식품/화장품은 제외)에 총 3억 8,800만 달러의 투자신고가 되었으며,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유치금액의 2.8%를 차지했다. 2010년에 지분인수와 대형투자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금년 신고 건수와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2007~2010년 연평균복합성장율(CAGR)을 분석한 결과, 4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합작 투자건으로 미국계 Global CRO인 Quintiles社의 한국 투자가 큰 의의를 가지며, 일본계 글로벌제약사인 Takeda pharma의 적극적인 증액투자와 셀트리온의 투자유치성과, GN resound와 같은 중견 의료기기 기업의 투자도 이어졌다.

또한 국내 중견제약사인 슈넬생명과학(주)의 계열사로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기업인 에이프로젠에 일본기업 Nichi-Iko pharmaceutical의 외국인투자사례와 같이 국내 유망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외국기업과 글로벌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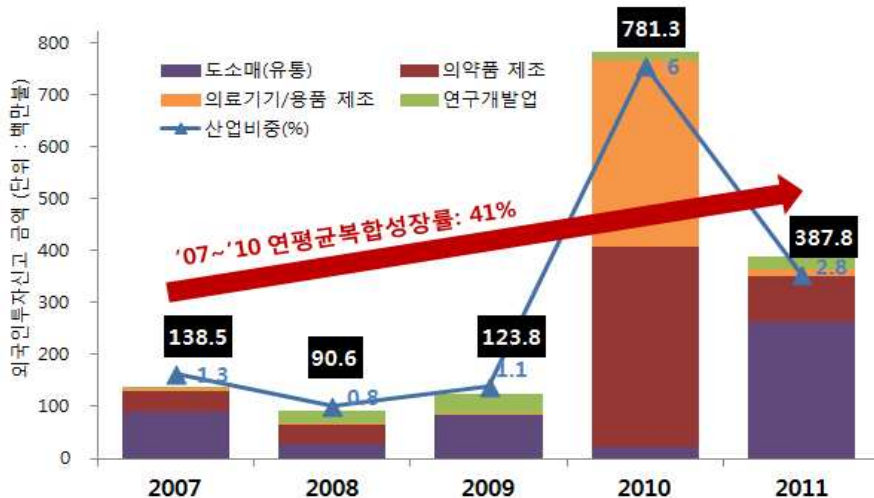
[표2-기] 최근 5년간 의약/의료기기산업 외국인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의료기기)	89.6	26.6	84.3	22.0	261.2
의약품/용품 제조업	38.7	37.3	0.2	38.4	89.8
의료기기 제조업	6.5	3.0	0.7	360.7	13.0
의학/약학 연구개발업	3.7	23.7	38.6	14.7	23.8
BT산업분야 신고총액(건수)	138.5 (55)	90.6 (26)	123.8 (40)	781.3 (53)	387.8 (21)
산업비중 (전체산업대비)	1.3%	0.8%	1.1%	6.0%	2.8%

자료원 : INSC

[그림2-2] 최근 5년간 의약/의료기기산업 사업형태별 투자추이



자료원 : INSC, KOTRA분석

BT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항체, 백신 등) 및 유전자치료제개발, 고령화 친화 의료기기, 천연물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CRO/CMO산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바이오메디컬단지(인천 송도, 경기), 의료기기벨리(원주), 대덕연구단지 등의 주요 특성화 단지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대학, 바이오벤처기업, 제약사, 임상시험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거대한 바이오 클러스터화를 모색하고 있다.

■ 한국에 진출한 BT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2011년도 매출액기준 상위 30대 제약사 중, 외투기업 18개가 도소매 및 제조업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4.3%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그동안 한국으로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에서 임상시험 확대 및 공동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나, 우리나라에 생산설비투자와 같은 대형 투자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2010년 글로벌제약사인 GSK가 동아제약과 전략적 제휴로 1.3억 달러를 투자, 독일 의료기기기업인 Dentsply가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DIO에 지분투자, 헬스케어진단분야 미국기업인 Inverness Medical Innovation(Alere)의 3억 달러 투자와 같이 국내기업에 지분투자 및 M&A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1년에는 Quintiles와 삼성바이오로직스, MeijiSeika와 동아제약, Nichi-iko pharmaceutical과 에이프로젠 등과 같이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하여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진출하는 투자추세가 두드러진다. 또한 한-미, 한-EU FTA를 통해 의약품 관세 철폐와 혁신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구조개편과 함께 신규 진출 중견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는 더욱 기대된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삼성의 바이오산업 진출로 주목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립은 미국계 글로벌 임상 시험기업인 Quintiles社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다. Quintiles의 참여를 통해 삼성은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글로벌기업으로부터의 생산수주, 전임상/임상시험 개발에도 Quintiles와 협력하게 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외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진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삼성과 Quintiles의 합작 투자는 자본금 3천 억원 규모로 국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2011년 6월에 3만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착공되었고, 2013년 상반기에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확대 및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2011년은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잠재력 및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해였다. 이미 포화상태인 방송통신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선전과 스마트TV, 3D TV 보급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9% 증가한 1,570억 달러의 생산규모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IT 수출을 주도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편화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DMB 상용화와 IPTV 확산에 따른 방송서비스 및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고도화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65조 원의 생산을 기록했다.

방송통신기기 또한 휴대폰 매출, 휴대폰 출하량, 스마트폰 출하량 등에서 2011년 3분기 세계 1위를 달성하고, Digital TV는 세계 시장에서 약 45%, 스마트TV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약 53%를 점유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하였다.

[표 2-8] 국내 방송통신 산업 생산액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방송통신산업	140,730	151,432	151,774	156,161
방송통신서비스	57,991	60,503	63,043	65,622
통신서비스	42,662	43,598	43,636	44,092
방송서비스	9,288	9,519	10,738	11,622
방통융합서비스	6,042	7,386	8,669	9,908
방송통신기기	82,739	90,929	88,731	90,539
통신기기	69,846	76,839	73,218	74,591
방송기기	12,894	14,090	15,513	15,94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등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0년 약 721만 명, 2011년 12월 이미 2,258만 명을 돌파하여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 중 약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모바일 광고 시장도 전년 대비 약 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 분류되는 IPTV 서비스는 2011년 약 494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이 약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소셜 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기기의 확산을 넘어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수요를 불러일으키며 관련 분야의 성장을 주도했다.

네트워크, 단말기, 플랫폼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스마트 생태계 구축 또한 방송통신 산업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보안, 개인정보 보호, 특허·지식재산권 등도 산업계의 쟁점으로 보인다.

또한 본격 개막한 LTE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도 국내 LTE 가입자는 2011년도 말(120만 명) 보다 10배 수준인 1,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방송통신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2007년 산업전체 FDI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 규모가 감소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편화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FDI 금액이 증가, 건당 유치금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2-9] 최근 5년간 방송통신 산업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 US\$백만,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방송통신 분야 (건수)	486 (120)	174 (67)	141 (54)	192 (55)	306 (54)
산업전체 (건수)	10,516 (3,560)	11,712 (3,745)	11,484 (3,131)	13,071 (3,109)	13,674 (2,707)
방송통신 비중(%)	4.62	1.49	1.23	1.47	2.24

자료 : INSC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고 IT 서비스에 민감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산업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2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D-TV(Digital TV) 수요 확대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제조사들 간 경쟁 고도화에 따른 테스트베드 필요성 등은 비단 단기적인 시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 잠재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구분으로 인해 신규 서비스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고, 고부가가치인 SW 및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방송통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①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②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③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④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및 정보보호 강화 등을 선정했다. 또한 20대 세부과제 및 100대 실현과제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글로벌 IT 허브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되,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IT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 한국에 진출한 방송통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최근 5년간 한국에 진출한 방송통신 분야 주요 외투기업은 무선통신장비 기업인 노텔(캐), 노키아-지멘스(핀), 인텔(미) 등과 세계적인 산업용, 통신용 커넥터 기업인 암페놀(네) 등이 있다. 한편, 2011년에는 대지진 여파로 IDC(Internet Data Center) 이전 관련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했는데 KT와 일본의 Soft Bank Telecom'(일)의 경남 김해 지역 'KT SB Data Service' 합작회사 설립을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일본의 '다쏘시스템즈',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인 '티켓몬스터' 등이 있다.

대한투자 성공사례

KT와 일본의 소프트뱅크텔레콤(회장 손정의)은 2011년 12월 8일 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합작사 KT-SB 데이터 서비스(대표 장혁균, 공동대표 이시오카 유키노리, 이하 KSDS) 공동출범을 발표했다. KT 51%, 소프트뱅크 49%의 지분 구성으로 총 자본금 370억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기업이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2011년 8월 이전 논의, 11월 법인 설립, 2012년 2월 준공 완료 이후, 5월 서비스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추후 증액투자를 통해 일본시장 뿐 아니라 아시아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관광레저 산업

지역개발(부동산)시장 및 관광레저 산업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이다. 2011년 10월 UNWTO발표에 의하면, 관광산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을 전환점으로 완전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2)에 따르면, 2012년 세계 관광산업은 2.8%의 성장 및 자본투자는 2조 달러로 예상되고, 1억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2010년~2019년)간은 연간 5% 내외에서 자본이 증가하여 자본투자 총액이 2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극동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은 6.7%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2-10] 관광레저 · 지역개발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GDP대비 관광비중	4.9	9.2	8.6	8.8	5.8
실질 성장률 전망	4.8	2.3	12.9	1.8	4.1
총 고용대비 관광비중	5.4	7.1	8.3	10.4	5.5
총 자본투자대비 관광비중	2.1	2.9	3.3	5.2	2.1

자료원 : 통계청

한편, 2011년도 세계경제포럼(WER)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 133개국 중 32위이며, 아시아 · 태평양지역 26개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관광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문화자원(5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8위) 등인 한편, 열위를 나타내는 분야는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120위), 가격 경쟁력(96위) 등으로 나타났다.

[표2-11] 관광레저 · 지역개발 투자환경 분석

경쟁력 순위	경쟁력 열위
문화자원 5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8위 육상교통인프라 18위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 120위 가격 경쟁력 96위 관광 인프라 94위

자료원 : 세계경제포럼 2011

한국의 관광레저 · 지역개발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현재 투자신고 통계상 관광산업 및 지역개발의 투자실적은 음식 · 숙박, 부동산 · 임대, 문화 · 오락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 5년간 해당 분야의 투자 실적은 서비스산업 실적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은 2009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12] 관광레저·지역개발 분야별 투자유치 실적

(단위 : US\$백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결과	10,515		11,711		11,484		13,071		13,673	
서비스업	7,612	72.4	8,387	71.6	7,594	66.1	6,302	48.21	7,269	53.16
음식·숙박	422	5.5	37	0.4	176	2.3	58	0.9	127	0.9
부동산임대	977	12.8	689	8.2	1,420	18.7	2,687	42.6	1,474	10.8
문화오락	366	4.8	151	1.8	55	0.7	110	1.7	469	3.4
합계	1,765	23.1	877	10.4	1,651	21.7	2,855	45.2	2,070	15.8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 국내외 부동산(지역개발) 산업

세계 부동산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규 개발시장 보다는 안정적인 개발시장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2011년은 3.8%에서 2012년에는 3.5%로 낮아질 전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회복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것은 투자개발시장의 자금회수 및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로 나타나게 되어 투자시장은 위축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시장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동산개발 시장은 상호저축은행부도 및 금융기관의 PF 대출규제,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진출은 어려운 상태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유동화 비율이 높은 상가, 오피스빌딩, 주거용(타운하우스), SOC사업(참여)등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단독 또는 주도형개발에서 합작, 협력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는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유통 분야의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개발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 한국의 부동산 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 동향

6개 FEZ, 2개 기업도시, 1개 관광레저도시, 1개 특별자치도, 1개의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8개 혁신도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토 개발사업의 역점을 지역 중심적 모델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개발구역 확정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은 민간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어서 민간 개발사업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새만금 개발사업, 4대강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개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2 여수EXPO개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개발의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형 개발 사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한국에 진출한 관광레저 · 지역개발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현재 관광레저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한-미 FTA, 한-EU FTA는 투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TAUBMAN, Forever21, Chelsea, KOZAR LLC, 중국의 분마, 호주의 맥쿼리社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외 서울시에 기존의 반야트리 호텔 외 오리엔탈 만다린호텔이 진출 예정이며, 제주도의 예레휴양지구에는 말레이시아 기업 버자야가 투자하고 있고, 중국 분마그룹은 이호랜드 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해양관광산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Florida Marina Development, 싱가포르의 SUTL, 호주 BP Development 등 마리나 리조트개발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개발 투자사례

경기도 하남 복합상업용 개발사업에 미국의 TAUBMAN 그룹은 KOTRA, 하남시의 지원으로 개발컨소시엄에 합류하여 동 사업 참여를 가시화하였다.

TAUBMAN 그룹은 미국에 소재한 1952년에 설립된 민영기업으로 주요 사업 분야로는 부동산 개발, 쇼핑몰 개발이며 전 세계에 6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 TAUBMAN 그룹은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에 3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 3곳 이상의 복합 쇼핑몰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의 물류 산업

전 세계 물류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조 7천억 달러(세계GDP의 13%)에서 2020년 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은 2009년 통계조사 기준 11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2006년 대비, 3년 사이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업체수는 34만 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328백만 원으로 산업 전체에 있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2-13] 물류산업 주요 통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백만원)	90,160,022	102,438,350	127,745,306	111,981,875
운영비용(백만원)	81,315,502	91,940,062	117,017,948	105,417,240
물류기업(개소)	332,611	341,789	339,992	340,529
평균 매출액(백만원)	271	299	375	328

자료원 : 통계청 (2011)

우리나라 물류기업 중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기업은 총 51개로 물류산업 전체 매출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가운데 7개 순위를 차지하였던 해운선사가 경기에 민감한 업종 특성상 2011년 매출액 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난 반면, 화주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물류기업(3PL), 항공 등 국제 운송 분야가 주력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11년도 글로벌리스社 매출액 7조 5,477억 원 (전년 대비 1조 7,100억 원 증가)

한국의 물류·유통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물류산업(운수창고) 분야의 2011년 투자유치 신고액은 14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특성상 도소매 유통업과 결부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물류와 유통업을 결부시켜 외투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요 투자자들의 M&A 등에 국내 투자비율이 연동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작년의 경우 물류·유통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23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 중 21.4%를 차지하였다.

[표2-14] 지난 5년간 물류유통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US\$백만,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외투금액	10,514	11,705	11,483	13,072	13,673
운수창고(물류)	564	704	265	197	143
A : 비율(%)	5.4	6.0	2.3	1.5	1.0
도소매유통	807	499	1,827	938	2,203
B : 비율(%)	7.2	4.4	17.3	8.0	19.1
A+B : 비율(%)	10.4	9.5	22.7	14.0	21.4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유통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8 한·중·일 유통·물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3자 물류(3PL) 활용비율은 28.8%에 불과하여 이 분야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2-15] 한·미·일 기업매출액 대비 물류비 지출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물류비	한국	미국	일본
1999	9.4	12.5	7.5	6.1
2001	8.6	11.1	9.1	5.5
2003	7.3	9.9	7.5	5
2005	6.8	9.7	7.5	4.8
2007	6.5	9.74	9.74	4.84
2009	6.63	8.48	8.48	4.77

자료원 :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매출액 대비 물류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개선되어 2009년 현재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대국 일본뿐만 아니라 극동연해주와 타이완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연계하는 지정학적인 우수성과 더불어, 인천공항(화물물동량 기준 세계 2위), 부산항(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 등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잘 정비된 고속도로망과 철도, 내륙물류거점시설 등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향후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항 및 항만을 세계 물류시장의 Trunk Route로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글로벌 제조, 유통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한국시장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정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의 터미널 운영 및 건설 분야, 물류단지 내 위치할 핵심유통센터분야 등을 투자유치 유망분야로 선정, 구주, 북미, 일본 시장 등의 물류분야 유망투자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또한 물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한국에 진출한 물류·유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물류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주로 국제물류주선업, 항만운영업, 국제특송, 물류부동산업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항만운영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터미널운영업체인 홍콩의 HPH(Hutchison), 싱가포르의 PSA, 아랍에미리트의

DP World와 해운선사인 대만의 Evergreen/Uniglory, 이스라엘의 Zim 등이 있다. 국제특송업 분야에 DHL이 1977년 처음 진출한 이래, TNT(1983년), FedEx(1988년), UPS(1988년) 등 글로벌 4대 메이저 특송업체가 모두 진출해 있다. 물류서비스 제공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외국계 부동산 펀드들의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국내 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Mapletree, AMB Property, Asendas Korea 등 약 30여 개의 외국계 투자회사가 진출해 있다.

유통산업의 경우, 영국의 테스코가 300여 개의 점포를 개설,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왔고, 미국의 코스트코 역시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상기 업체들은 공히 국내 주요 물류거점 및 항만배후부지에 대규모 매장 및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물류 산업과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물류·유통 분야의 투자유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물류 부동산개발 분야는 싱가포르의 Mapletree社 등이 3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를 한 바 있으며, 제3자 물류업체 (Schenker: 1천4백만 달러, '07. 5)들의 인천공항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부산신항 내 미국 Amway社의 동아시아 물류거점 투자가 이어지는 등 항만의 개발, 운영,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분야에서 다각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분야는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구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I社의 경우, 플래그쉽 스토어 출점을 위한 부지를 2011년도에 확보 하였으며, 총규모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프랑스의 스포츠 유통업체인 Decathlon社의 경우, 수도권 복수 매장 출점을 목표로 1억 달러를 투자신고 하였다.

■ 한국의 금융/M&A 산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글로벌 M&A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M&A 증가세도 2/4분기부터 둔화되었다. 2011년 M&A 심사건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4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하였다.

반면 국내기업 관련 M&A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심사건수(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제외)는 467건으로 전년 대비 4.7%, 결합금액은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2010년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계열사간 결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011년에는 타 회사 인수 목적인 비계열사간 결합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68.9%→73.8%). 2009~2010년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선호한 반면, 2011년부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1년 국내 주요 M&A는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인수(결합금액 4.96조 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3.92조 원), SK 텔레콤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인수 (3.43조 원) 등을 들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의 주요 M&A를 보면 Seagate Technology社의 삼성전자 하드디스크 사업부 인수(1.5조 원), Mahindra & Mahindra社의 쌍용자동차 인수 (0.4조 원) 등이 있다.

[표2-16] 분기별 심사건수 추이

[단위 : 건]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09년	91	97	114	111	413
2010년	120	122	124	133	499
2011년	131	156	123	133	543

자료원 :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에도 제조업 분야 M&A는 28.7% 증가하면서(157건→202건) 13.3% 감소한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11년에도 결합 금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M&A 7건 중 6건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피 취득회사의 영위업종 기준)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이 264건으로 사업 전체 대비 53%를, 기계·전자·화학 등 제조업이 20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한편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혼합결합(244건, 56.6%), 수평결합(129건, 29.9%), 수직

결합(58건,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여 혼합결합은 증가(25.5%→56.6%), 수직결합 비중은 감소(17.6%→13.5%), 수평결합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30.2%→29.9%)

결합방법을 살펴보면, 주식취득(32.9%)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병(22.5%), 회사 설립(20.0%) 임원겸임(15.1%), 영업양수(9.5%)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관련 업종의 계열사 간 합병이 빈번했으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더 공격적인 M&A, 즉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식취득 방식의 M&A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보면 2011년 총 24건이며 결합금액은 1.9조 원으로 건수는 41.2%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84.2%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 기업의 대형 규모 해외기업 인수 건은 적었으며 소규모 합작회사 설립(13건)이 대부분이었으며, 주요 사례로는 삼성LED-스미토모카가쿠 (일본), SKC-Toyo Aluminium (일본), 한전-Uhde GmbH (독일) 등이 있다.

한국의 금융/M&A 투자유치 환경 및 정책

우리나라의 M&A형 FDI의 실적은 2005년 52.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1에는 1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M&A형 외국인투자유치 비중을 보면 2005년 45.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4.4%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이가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여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인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5-6년간 M&A형 외국인투자유치가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45.5%를 제외하면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2-17]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및 M&A형 비중

(단위: US\$백만)

투자유형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투자유치액	10,516	11,711	11,484	13,072	13,675
M&A형	2,483	4,431	3,375	2,017	1,972
Greenfield형	8,033	7,279	8,109	11,055	11,703
M&A형 비중	23.6%	37.8%	29.3%	15.4%	14.4%

자료원 : INSC (신고기준)

M&A형 외국인투자유치 비중은 자본시장의 발전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M&A형 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정책과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진 금융부문의 경쟁력으로 인해 M&A형 투자의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규모 증대, 국내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및 금융시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 금산분리 완화, 금융 공기업 개혁 등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전되고 있어 향후 M&A형 외국인투자유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 진출한 금융/M&A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는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로 나눌 수 있다. PEF는 주로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현재 골드만삭스, 칼라일, KKR, TPG, Apollo 등 글로벌 5개 PEF가 모두 한국에서 투자를 한 바 있거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매물로 나온 기업이 적고 국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경쟁으로 글로벌 PEF 사들이 큰 국내 M&A 건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2011년의 경우 대형 M&A 2건이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금액의 70.5%를 차지하였다. (Seagate Technology PLC-삼성전자 HDD사업부문 인수(1.5조 원), Mahindra and Mahindra Limited-쌍용자동차 인수(0.4조 원))

벤처캐피탈은 일반 VC와 다국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로 구분할 수 있다. Intel社에서 운영하는 Intel Capital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단계 (Start-up) 기업에 투자하며 현재 한국에서 30여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Qualcomm도 2010년에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펄서스, 오브제 등 국내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국내에 10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알토스 벤처스, 스톱 벤처스, DFJ Athena, 매버릭캐피탈, 블루런 벤처스, IDG 등 글로벌 VC 10여 개 사가 한국에 진출해 있다. 글로벌 PEF와는 달리 해외 VC는 2011년 국내에 활발하게 투자를 했는데, 매버릭캐피탈, 알토스벤처스, DCM 등이 카카오 및 쿠팡社에 각 2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 투자 성공사례

일본 파친코(パチンコ) 1위 기업인 Dynam Holdings는 스크린골프 장비 제조기업인 '알디텍'에 2011년 8월 8백만 달러(약 85억 원)를 투자하였다.

Dynam Holdings는 일본 내 352개소에 파친코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디텍과의 전략적 자본 제휴를 통해 동사의 스크린골프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일본과 미국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알디텍은 Dynam Holdings와 자본제휴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 8백만 달러의 자본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Dynam社와 향후 5년간 스크린 골프장비 10,000대(약 2,000억 원 상당)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II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국경제 기여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²⁾

■ 매출액

2010년 외투기업의 매출은 소산업(금융제외) 221조 원, 산업별로는 제조업 161조 원, 비제조업 60조 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비해 매출규모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경우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13.1%→10.6%) 하였다.

[표3-1] 외투기업 매출규모와 국내기업 비중

(단위 : 십억 원, %)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전 산업	2,481,230	2,932,600	232,545	221,016	9.4	7.5
제조업	1,263,127	1,512,284	165,043	160,799	13.1	10.6
비제조업	1,218,103	1,420,316	67,502	60,218	5.5	4.2

주 1) 국내기업 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이용.

2) 외투기업의 2008년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에서 인용.

3) 전 산업 및 비제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이는 첫째, 전체 외투기업(모집단)으로 정의된 기업 중 총 4,232개 기업이 2009년에 일괄적으로 등록 말소함에 따라 전체 외투기업(모집단)이 크게 감소하여 총 현존금액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다.

[표3-2] 등록말소 기업의 산업별 비중

(단위: 개사, US\$천, %)

	기업 수		총 신고금액		총 도착금액	
	개사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산업	4,232	100.0	7,522,203	100.0	2,658,950	100.0
제조업	432	10.2	1,549,141	20.6	1,453,671	54.7
전자	153	3.6	1,070,547	14.2	1,044,387	39.3
자동차	18	0.4	144,511	1.9	141,422	5.3
비제조업	3,745	88.5	5,636,535	74.9	917,238	34.5
도소매업	2,933	69.3	295,885	3.9	288,128	10.8
운수업	40	0.9	173,842	2.3	173,657	6.5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포함, 비제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2)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국경제 기여' 부분은 '2011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주관기관 : 지식경제부, 조사기관 : KOTRA, 고려대학교,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우량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 편입됨으로써 외투기업에 비하여 국내 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표 3-3] 국내기업으로 편입된 대표 외투기업의 최근 매출액

[단위: 십억 원]

기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옥션	203	225	267
현대오일뱅크(주)	14,767	10,868	13,327
쌍용자동차(주)	2,495	1,067	2,070
대한통운	1,737	1,832	2,098
오비맥주(주)	751	816	270
한진해운홀딩스	10	13	159
엘지디스플레이(주)	15,865	20,119	25,004
(주)진로소주	57	63	58
(주)바이더웨이	459	568	627
(주)더페이스샵	235	257	288
케이파워(주)	568	709	894
엘지에릭슨(주)	1,112	742	607
엘지폴리카보네이트(주)	320	366	521
오텍캐리어(주)	314	277	239
동부하이텍	1,348	484	593
(주)티케이케미칼	711	777	882
해태음료(주)	288	260	253
에스피피조선(주)	555	908	999
합계	43,922	42,493	51,166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KisValue)

셋째,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제품, 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에서 국내기업의 실적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외투기업의 실적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구성비를 계산한 결과,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화학제품, 전자, 자동차에서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특히 외투기업의 경우 이들 3개 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3-4] 전 산업에서 제조업 세부업종이 차지하는 구성비(매출액 기준)

[단위: %]

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석유정제	4.1	9.9
화학제품	5.8	11.3
의료정밀광학	0.6	0.8
1차 금속	5.0	4.5
전자	10.8	10.0
일반기계	2.8	3.6
자동차	6.3	11.5
기타제조	4.0	0.5

[표 3-5]에 따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외투기업은 오히려 감소한 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분모의 값을 크게 만들게 되어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2010년 외투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200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5] 매출액 증감을 크게 나타낸 대표 제조업 기업

[단위: 십억 원, %]

기업명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2008년	2010년	
국내기업	LG전자(주)	27,639	29,239	2.9
	(주)효성	6,926	8,192	8.8
	금호석유화학(주)	3,182	3,886	10.5
	삼성전자(주)	72,953	112,249	24.0
	기아자동차(주)	16,382	23,261	19.2
외투기업	DK유아이엘 (주)	183	103	-24.9
	(주)코리어나화장품	122	105	-7.2
	(주)비티씨정보통신	72	2	-83.7
	(주)아이리버	207	107	-28.0
	(주)피델릭스	72	42	-24.0

자료원 : 한국신용평가정보(KisValue)

고용

2010년 외투기업의 고용규모는 전산업(금융 제외)에서 31만 명으로 추산되며 산업별로는 제조업 16만 명, 비제조업 15만 명으로 2008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제조업 및 금융업에서는 2만 1,672명과 7,311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제조업 및 금융업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인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둔화에 따라 약 3만 1,960명이 감소하여 전 산업의 고용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외투기업 고용 추산결과 및 국가비중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전 산업	6,871,068	7,329,623	318,134	307,846	2.0(4.6)	4.2
전 산업 (금융업 포함)	7,240,948	7,698,676	347,161	344,183	-(4.8)	4.7
제조업	2,592,780	2,472,717	194,692	162,732	5.9(7.5)	6.6
비제조업	4,278,288	4,856,906	123,442	145,114	1.0(2.9)	3.0
금융업	369,880	369,053	29,027	36,338	-(7.8)	9.8

주 1) 외투기업의 2008년 통계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에서 인용

2) 괄호 안의 값은 2008년 외투기업 통계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임

3) 전 산업 및 비제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한편 매출 10억 원당 고용인원을 계산한 결과 외투기업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국내기업의 매출 10억 원당 고용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투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국내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 산업을 기준으로 매출 10억 원당 고용인원을 계산한 결과 외투기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당 고용인원(금융업 미포함)은 2008년 1.36명에서 2010년 1.39명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매출 십억 원당 고용인원은 2010년 2.49명으로 2008년 2.76명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국내기업은 2008년 2.05명에서 2010년 1.63명으로 크게 낮아진데 반해, 외투기업은 2008년 1.17명에서 2010년 1.01명으로 감소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의 경우 국내기업의 매출 10억 원당 고용은 2008년 3.51명에서 2010년 3.41명으로 감소한데 반해, 외투기업은 2008년 1.82명에서 2010년 2.4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비제조업 부문 외투기업의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창출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7] 외투기업의 매출 10억 원당 고용인원

[단위: 명]

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전 산업	2.76	2.49	1.36	1.39
제조업	2.05	1.63	1.17	1.01
비제조업	3.51	3.41	1.82	2.40

주 1) 전 산업 및 비제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2) 매출 십억 원당 고용인원은 종사자 수/매출액(십억 원)으로 계산.

■ 부가가치

2010년 외투기업의 부가가치는 쏠산업(금융 제외) 57조 원으로 산업별로는 제조업 30조 원, 비제조업 27조 원으로, 2008년에 비해 부가가치 규모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의 2008년도에 비해 감소한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면 외투기업의 경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외투기업 부가가치 규모와 국내기업 비중

[단위: 십억 원, %]

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전 산업	537,457	625,136	40,109	56,666	6.0(7.5)	9.1
제조업	254,168	302,418	25,932	29,537	9.6(10.2)	9.8
비제조업	283,289	322,718	14,178	27,129	3.2(5.0)	8.4

주 1) 외투기업의 2008년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에서 인용.

4) 괄호 안의 값은 2008년 외투기업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임.

5) 전 산업 및 비제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이와 같은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증가는 외투기업이 바이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 성장 동력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는 외투기업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수출입(제조업)

2010년 외투기업 중 제조업의 총 수출액은 63조 원이며 총 수입액은 56조 원으로 외투기업 역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수출 및 수입 모두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국내기업의 수출입이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모두 200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표 3-9] 외투기업 제조업의 수출입 규모와 국내기업 비율

[단위: 십억 원, %]

구분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수출	465,301	539,261	57,665	62,619	12.4	11.6
수입	479,930	491,656	59,209	55,533	12.3	11.3

주 : 외투기업의 2008년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의 결과에 2008년 연평균 환율(1,102.59원)을 적용하여 원단위로 변경함

이러한 비중의 감소는 수출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던 우량 외투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 국내기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2008년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외투기업 중에서 수출입 비중이 높은 석유정제 업종에서 현대오일뱅크(2010년 16.6억 달러 회수) 등과 같은 대기업이 외투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편입됨으로써 외투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수출입 비중이 소폭 감소한 원인으로는 외투기업의 투자동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즉, 외투기업의 주요 투자 동기는 크게 내수시장 진출, 수출 생산기지 활용, 우수인력 활용 등인데 이러한 투자동기 중에서 수출 생산기지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에 의하면 모기업의 투자동기 중 수출 생산기지 활용이 21.2%를 차지한 반면 2010년 수출 생산기지 활용을 목적으로 한 외투기업은 10%(INSC 조사결과)로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기업 비율의 감소로 인해 국내기업에서의 수출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비(제조업)

외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로 2008년의 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외투기업 제조업의 연구개발비규모와 국내기업 비율

[단위: 십억 원, %]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2008년	2010년
19,508	24,793	701	766	5.9(3.6)	3.1

주 1) 외투기업의 2008년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2010)에서 인용
2) 괄호 안의 값은 2008년 외투기업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임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 수익성

전체 산업의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8.0%, 매출액순이익률 6.9%, 자기자본순이익률 10.4%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제외하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의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p, 매출액순이익률은 2.0%p,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전 산업)

[단위: %, 배]

구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2009년	2010년	2010년	2010년
매출액영업이익률	6.5	8.0	5.9	1.36
매출액순이익률	4.9	6.9	4.5	1.53
자기자본순이익률	8.2	10.4	10.8	0.96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 안정성

전 산업의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는 자기자본비율 46.9%, 부채비율이 113.1%로 나타났다으며, 국내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자본비율은 1.01배, 부채비율은 0.99배 수준으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전 산업)

[단위: %, 배]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자기자본비율	46.9	46.6	1.01
부채비율	113.1	114.8	0.99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 성장성

외투기업의 성장성 지표에서 총자산증가율은 12.9%로 국내기업에 비해 1.34배 높으며, 매출액증가율 역시 21.7%로 국내기업에 비해 1.50배가 높다. 자기자본증가율은 35.4%로 나타났으며 국내기업 대비 수준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외투기업 성장성 지표(전 산업)

(단위: %, 배)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총자산증가율	12.9	9.6	1.34
자기자본증가율	35.4	13.9	2.55
매출액증가율	21.7	14.5	1.50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 생산성

외투기업 생산성 지표에서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노동자 수)은 2억 7,850만원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2.53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6,720만원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높은 생산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14] 외투기업 생산성 지표(전 산업)

(단위: 백만 원, 배)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노동장비율	278.5	110.0	2.53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167.2	74.0	2.26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 배당성향 지표

전체 외투기업의 배당률은 5.0%, 배당성향은 21.1%였으며, 국내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배당률은 0.56배로 낮고, 배당성향은 1.31배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의 배당률과 배당성향은 2009년에 비해 각각 4.0%p와 11.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투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15] 외투기업 배당성향 지표(전 산업)

(단위: 백만 원, 배)

구분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2009년	2010년	2010년	2010년
배당률	9.0	5.0	8.9	0.56
배당성향	32.3	21.1	16.1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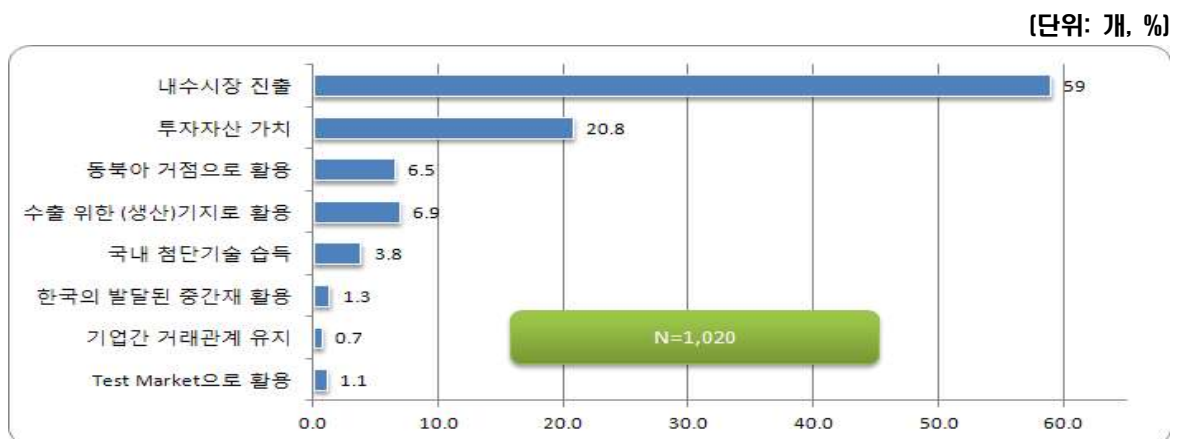
주 : 전 산업에는 금융업 미포함

3.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의 주요 특징

■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투자 동기

외국인투자자의 59.0%가 내수시장 진출을 한국 투자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 자산 가치가 20.8%로 두 번째 중요한 투자 동기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 위한 생산 기지로 활용(6.9%) 및 동북아 거점으로 활용(6.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1]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투자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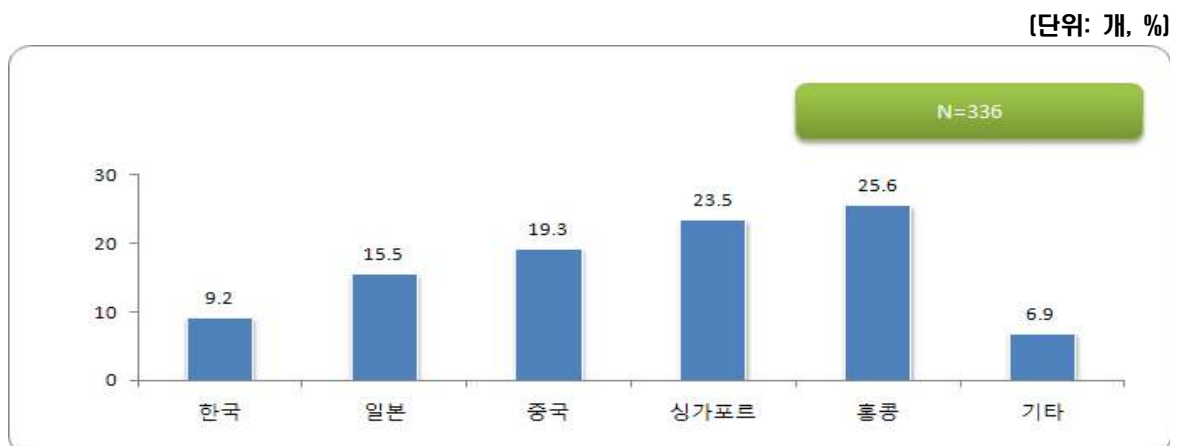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자의 아시아 지역본부

외국인투자자의 아시아 지역본부 소재 국가는 홍콩이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3.5%), 중국(19.3%), 일본(15.5%), 한국(9.2%)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32.1%로 비중이 가장 높으나 금융업 및 비제조업의 경우 홍콩이 각각 56.8%와 2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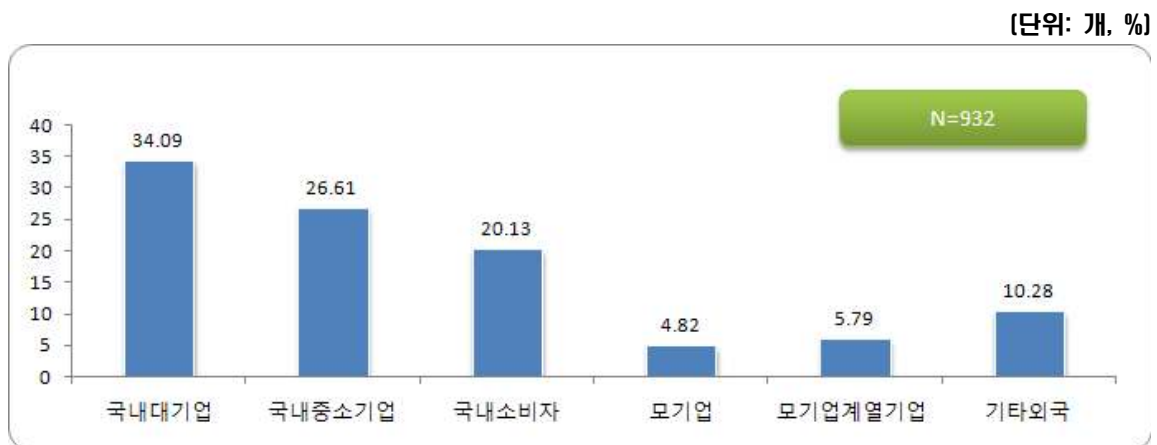
[그림 3-2] 아시아 지역본부의 위치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력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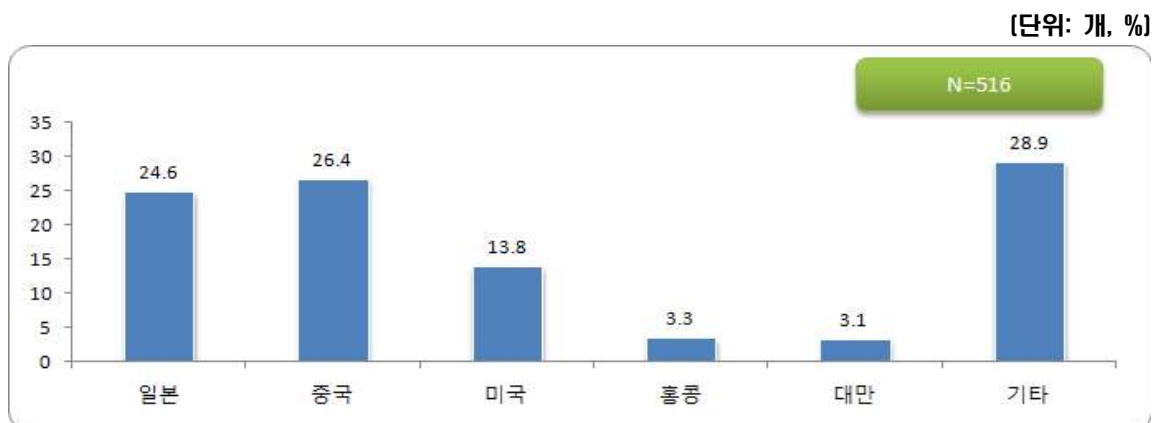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력시장은 국내가 80.8%로 해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으로의 판매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국내 대기업으로의 매출이 39.5%로 가장 높고, 금융업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48.3%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림 3-3] 외투기업의 주력시장



외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중국이 26.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일본 (24.6%), 미국(13.8%), 홍콩(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33.0%로 가장 높고, 비제조업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이 2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주요 수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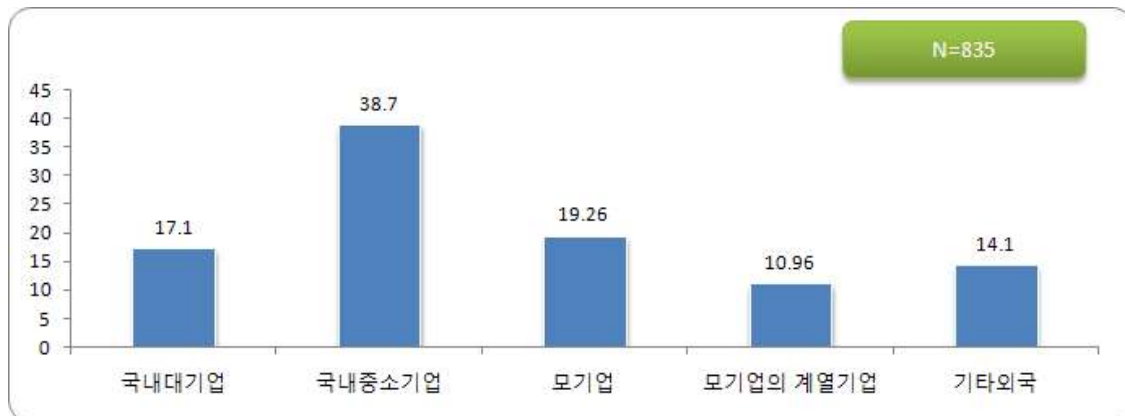


■ 조달활동 관련 특징

외투기업의 영업활동 시 필요한 원자재 혹은 서비스의 조달은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조달이 38.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모기업(19.3%), 국내 대기업(17.1%), 모기업의 계열기업(1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조달금액의 경로

(단위: 개, %)



외투기업의 주요 조달국가는 일본이 35.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미국(16.8%), 중국(15.2%), 독일(8.2%), 홍콩(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외투기업의 주요 조달 국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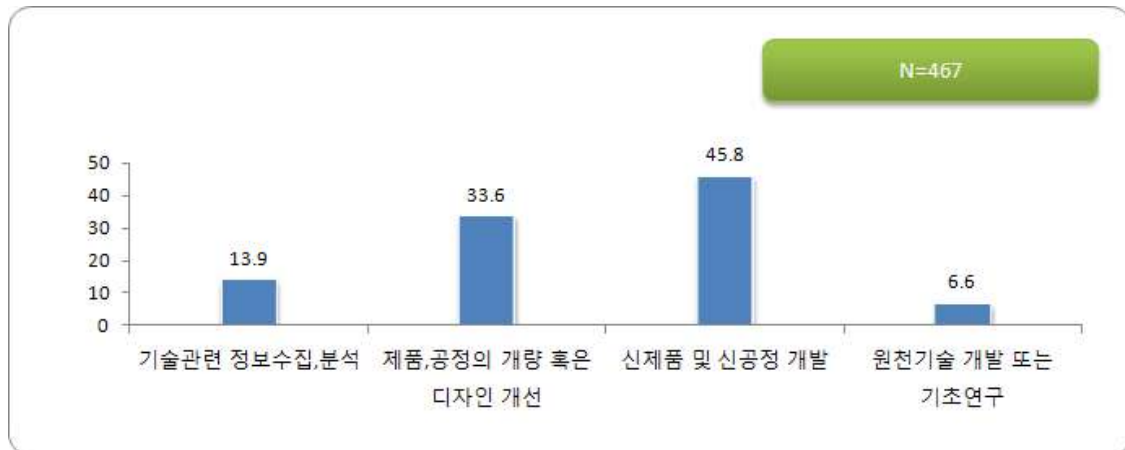


■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관련 특징

외투기업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신제품 및 신 공정 개발이 4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품, 공정의 개량 혹은 디자인 개선 역시 3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7]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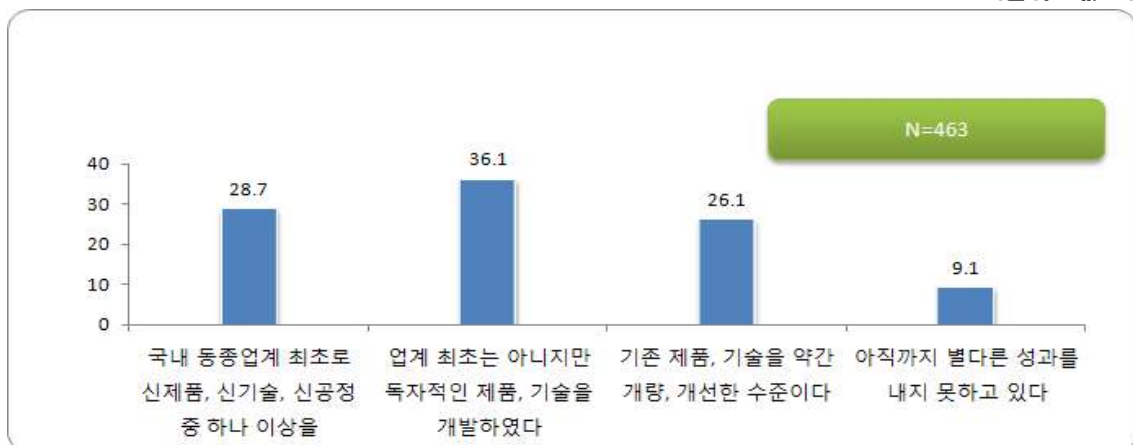
[단위: 개, %]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면 업계 최초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제품, 기술을 개발이 36.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신제품, 신기술, 신공정 중 하나 이상을 개발(28.7%)과 기존 제품, 기술을 약간 개량, 개선한 수준(26.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8] 외투기업의 연구개발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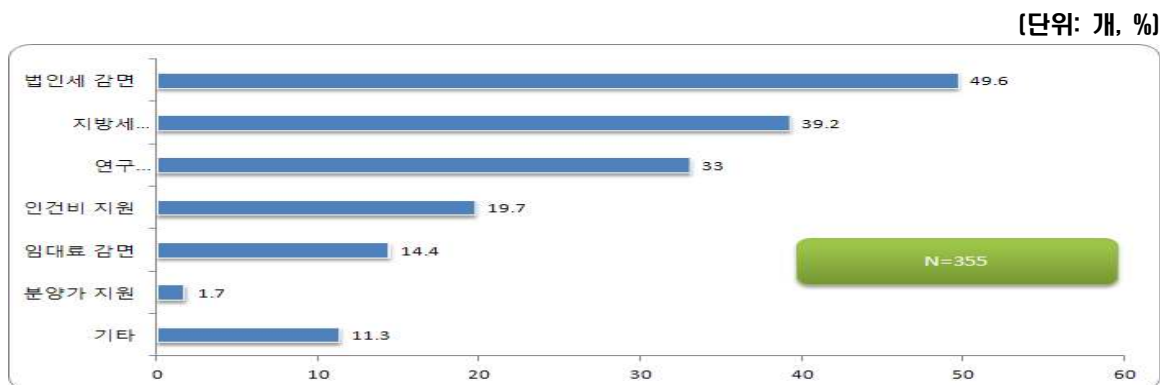
[단위: 개, %]



정부/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원 관련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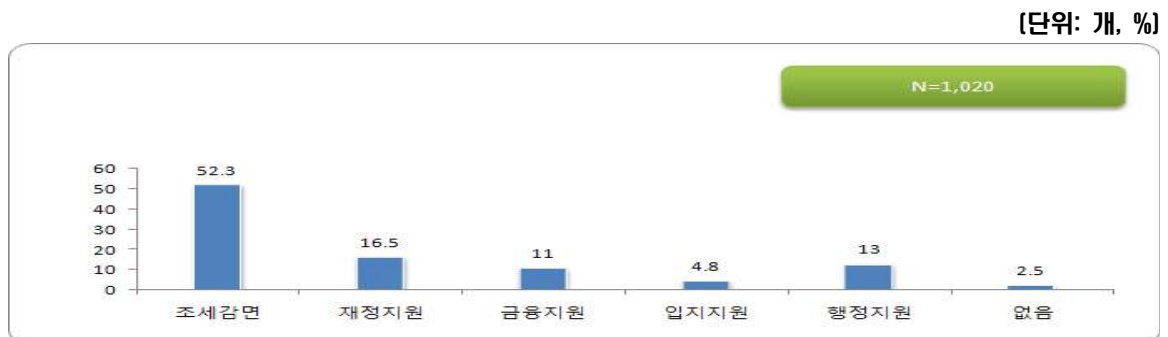
외투기업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으로는 법인세(49.6%) 및 지방세(39.2%) 감면 등 조세감면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종류 (중복선택)



조세감면이 가장 많은 받는 지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조세감면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활동



경영환경 만족

시장부분 중 성장잠재력, 인접시장 접근성, 산업기반에서, 인력부분 중 노동생산성, 종업원 책임감에서, 인프라 중 운송 및 물류, 통신, 전기 및 상하수도에서, 삶의 질의 생활환경 문화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연구개발·혁신 중 정부의 R&D 자금지원, 행정부분 중 행정절차의 간소성, 조세부분 중 조세부담은 외투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투자유치 실적

Invest KOREA는 국가 IPA로서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북한 김정일 사망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의 투자유치 조직 및 인적 역량 강화, 10대 중점분야 중심 타겟형 투자유치 활동,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 투자가 One-Stop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최대의 국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면서 기관의 국가 투자 유치 기여율은 2010년 60%에서 2011년 65%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며 중추적인 해외투자 유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표4-1] IK 투자유치 실적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10,515	11,711	11,484	13,070	13,674
IK 투자유치 실적 (신고기준)	4,741	4,929	7,393	7,892	8,892
IK 투자유치 기여도	48.0	54.3	64.4	60.4	65

주 : 2007년~2008년의 경우 FDI 유치액 중 금융·보험 M&A 제외 후 기여율 산정³⁾

자료원 : INSC

고부가서비스산업(금융·지역개발·물류 등)의 투자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3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하였으며, IT 융복합,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전년 대비 30.8%가 증가한 19.6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주력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도 강화하여 2010년 16.1억 달러에서 2011년 17.1억 달러로 6.3%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점유치 분야별로는 관광레저(16.2억 달러), 부품소재(15.5억 달러), 대형 재무적 투자가(9.1억 달러), 물류·유통(8.3억 달러), 신재생에너지(5.6억 달러) 등의 순으로 투자 유치 실적을 나타냈다.

한-미, 한-EU FTA 효과를 활용하여 FTA 수혜분야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고, 엔고,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우량 일본기업의 해외이전 수요를 흡수하면서 미, 일, EU 등 전통선진국 투자유치는 2010년 56억 달러에서 2011년 79억 달러로 41.1% 증가하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China Desk 신설 및 중국 투자기업 네트워킹 및 자문 활용을 위한 China Club 발족 등을 통한 중화권 투자유치도 노력하여, 2010년 대비 4.4억 달러에서 72.2% 증가한 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3) 2008년 이전의 경우, IK의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IK의 기여가 미약한 금융·보험 M&A 부문을 FDI 유치실적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2008년 이후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 및 투자협력지원팀 설치, 금융산업 IR강화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실적을 포함하여 집계

2. 프로젝트 발굴 실적

Invest KOREA에서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한국 투자환경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가 실행될 때까지 해외무역관의 투자전담관, PM(Project Manager),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2011년 IK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수는 1,180건으로 전년 대비 7.8%가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속에서 신흥자본국가로의 투자 권역 다변화, 고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 신성장 동력분야 투자유치 강화 정책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신규 발굴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국가 투자유치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4-2] IK 발굴 프로젝트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관리 프로젝트 수(건)	644	810	863	1,094	1,180

자료원 : Invest KOREA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주가 375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북미 359건, 일본 192건의 프로젝트가 관리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5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4-3] 지역별 관리 프로젝트 현황

구분	북미	구주	일본	중국*	아대주	중동	합계
관리 프로젝트 수(건)	359	375	192	118	99	32	1,180

주 : 홍콩, 마카오는 중국에 포함

자료원 : Invest KOREA

IK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개발, 관광레저, 물류·유통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 결과 9,814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기록함으로써 2010년 실적 3,790명 대비 159%, 2011년 목표(5,132명) 대비 91%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0대 중점분야 중심 타겟형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 타겟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고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서 부품소재가 1,548백만 달러로 최고 금액을 달성하였으며 뒤를 이어 지역개발 1,392백만 달러, 금융 914백만 달러 등 높은 금액을 달성하고 있다.

[표4-4] 타겟업종별 관리 투자신고 완료 프로젝트 현황

[단위 : US\$천]

업종	금액	업종	금액
부품소재	1,548,108	금융	914,941
항공우주	164,500	관광·레저	227,829
IT융복합 및 관련산업	518,147	지역개발	1,391,768
BT	464,967	물류·유통	830,279
신재생에너지	561,872	국부펀드	74,239

자료원 : Invest KOREA

3. 주요 분야별 투자유치 활동 실적

IK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해외투자 여력 감소에 대해 신흥자본에 대한 유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고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도 강화하였다.

■ 주력제조업

대외의존도 및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 독일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전용공단의 대외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해외 유력 자동차부품 메이커 유치를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메이커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하였다.

그 동안 국내산업의 영세성, 미성숙 등의 이유로 투자유치 기반이 미미한 항공우주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등 항공·방위산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절충교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4-5] 주력제조업 분야 주요 투자유치 활동

중점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부품 소재	지자체 합동 대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TFT(6월)	일본 잠재투자기업 21개사 방문 상담
	도쿄한국산업전 연계 투자유치설명회(9월)	일본기업 128명 참석, 5건 투자상담
	대일 투자유치 로드쇼(11월)	일본기업 166명 참석, 2.2억 달러 투자신고
	히로시마 IR 연계 대일 부품소재 투자유치 TFT(12월)	일본 잠재투자기업 5개사 방문, 5,100만 달러 투자신고
자동차 부품	경북 합동 북미 자동차 부품 투자유치 TFT(4월)	미국 잠재투자기업 6개사 방문 상담
	대일 투자유치 TFT 파견(6월)	8개사 방문상담, 프로젝트 5건 발굴
	EquipAuto 2011 파리 IR(10월)	프랑기업 52개사 참가
	히로시마 자동차부품 투자유치 IR(12월)	일본기업 24개사 참가, 4개사 상담
항공 방위 산업	항공우주분야 구주지역 IR개최 및 TFT(6월)	프로젝트 4건 발굴, MOU 1건 체결
	파리에어쇼 연계 투자유치 TFT(6월)	프로젝트 10건 발굴, 24백만 달러 상담
	독일 절충교역포럼 연계 항공방위 투자유치 TFT(10월)	독일기업 40개사, 6건 상담
	항공MRO 아시아 투자유치 TFT(12월)	일본·싱가포르 잠재기업 및 유관기관 6개사 방문 상담

■ 신성장동력산업

우리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IT융복합, BT, 반도체, 정밀화학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4-6]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투자유치 활동

중점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신재생 에너지	그린산업 투자 신고식(1월)	150백만 달러 투자신고
	Wnd Power Expo 2011 연계 투자설명회(9월)	스페인 기업 40개사 참가, 익월 1억 달러 투자신고
	태양광 투자유치 TFT(11월)	잠재투자가 1개사 발굴
정밀화학	유럽 정밀화학 투자유치 TFT(5월)	프로젝트 3건 발굴, 9천만 달러 투자신고 확인서 접수
	일본 2차전지 소재 투자유치 IR(9월)	일본기업 11개사 참가,
	화학전자재료 구주 TFT(11월)	잠재투자가 1개사 발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북미 투자유치 TFT(8월)	50백만 달러 투자신고, MOU 1건 체결
	대전시, 대덕특구 북미 TFT(11월)	공동기술사업화선정 과제 해외파트너 면담
IT융합	미주 투자유치 TFT(11월)	IDC 투자기반 조성 및 타겟기업발굴
	북미 지자체 합동 IR(11월)	281명 참석, 6개 지자체 참여
BT	바이오메디컬 미주 공동 투자유치 TFT(6월)	45백만 달러 증액투자 유치
	대구시 일본 TFT (9월)	고베바이오클러스터 방문
	경기도 구주 TFT (10월)	CPhI2011 연계 경기도 투자유치 상담
	대구시 구주 TFT (11월)	Medica2011연계 TFT, 스웨덴 클러스터 방문

한편, 해외 글로벌 우수기술기업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분야의 국내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공동R&D, 마케팅 등 다중협력(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GAPS)을 확대한 결과, 솔베이스가 특수화학 부문 글로벌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고 공동 R&D 센터를 짓는데 17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열려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표4-7] 글로벌 R&D 및 파트너링 분야 주요 투자유치 활동

중점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글로벌 R&D 협력	Solvay사 첨단소재 R&D센터 설립(5월)	1,700만 달러 투자
	글로벌산학협력형 유럽거점대학 선정(6월)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 선정
	구주 공동R&D 프로젝트 유치 TFT(7월)	협력수요 4건, 신규 프로젝트 6건 발굴
	클러스터형 국제공동 R&D TFT(10월)	독일 혁신클러스터와의 국제공동 R&D 방안 논의
GAPS	GAPS with DOW Chemical(1월)	국내기업 293명 참석, 신규 프로젝트 8건 발굴
	GAPS with BASF(8월)	국내기업 211명 참석, 신규 프로젝트 6건 발굴
	GAPS with P&G(12월)	국내기업 224명 참석, 신규 프로젝트 12건 발굴
	GAPS with GAMESA(12월)	국내기업 165명 참석, 신규 프로젝트 7건 발굴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Invest KOREA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금융, 관광·레저, 물류·유통 등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였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우량 중견기술기업이 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북미 금융IR(2월), 싱가포르 투자유치 포럼(9월), 한국 사모펀드·벤처포럼(11월)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및 금융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지역개발 투자유치 일본IR(1월), 호주 투자유치 IR(2월), 북미지역 투자유치 IR(10월, 12월), 지역발전주간 연계 투자유치설명회(9월)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우량 물류·유통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신항만공사 북미지역 물류IR(3월) 개최, 구주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발굴 IR/TFT(6월) 파견, 국토해양부 중국지역 물류IR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4-8] 고부가 서비스산업분야 주요 투자유치 활동

중점분야	사업명	추진내용
금융	뉴욕·LA 투자로드쇼	미국 금융기업 144명 참가, 4개사 방문상담
	실리콘밸리 벤처투자로드쇼	한국기업 11개사, VC 27명 참가, 61건 상담
	시드니 벤처투자 TFT	47명 참가, 2억 달러 투자신고, 5개사 방문상담
	싱가포르 CTIW Aisa 2011 연계 IR	250개사 참가, 홍보관 운영, 180건 투자상담
	홍콩, 싱가포르 IR	설명회 237명 참석,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영국 IR	154명 참석, 1억 달러 투자신고, 12건 투자상담
	KOREA PE/VC Cleantech Forum	Cleantech Group(美), SGI(韓), Dow Jones(美), 조선일보(韓) 등과 연계, PE/VC 전문포럼 개최
	글로벌 Win-Win Fund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Win-Win 외국인투자 매칭펀드 런칭
관광레저/지역개발	지역개발 일본 IR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개최
	호주지역개발 IR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싱가폴 지역개발 TF	투자신고 1.5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 발굴
	관광개발 중국 IR	투자설명회개최 및 투자 IR
	북미 지역개발 IR	투자상담회 및 프로젝트 발굴
물류/유통	미주지역 물류IR	향후 3년간 70백만 달러 내외 FDI 성약
	구주지역 물류IR	57백만 달러 투자유치MOU 및 잠재외투기업 발굴
	중국지역 물류IR	향후 3년간 150백만 달러 내외 FDI 성약 투자유치MOU 2건
	FIW연계 물류유통 설명회 및 상담회	투자가 초청 설명 및 상담회, 프로젝트시찰

■ 신흥자본국

선진국의 내수침체 지속으로 인한 해외투자 여력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투자유치국 다변화 전략을 전개하였다.

우선, 중국이 '12·5 계획기간(2011~2015년)에 해외투자 실시 가속화 정책에 발맞춰 중국 자본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이용하기 위해 2010년에 본사, 상하이에 이어 2011년에는 베이징, 광저우 등에 중국 전담창구인 'China Desk'를 설치하였다.

IK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China Desk 등 중화권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 전역에서 한국투자유치설명회, 투자유치 TFT 등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홍보 및 투자 유치에 주력한 결과,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자본으로부터 총 8억 5천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5월에 개최된 북경IR을 중국의 관영 CCTV가 설명회장 및 IK 역할 등을 취재하여 중국 전역에 방영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주한 중국투자기업협회(China Club) 개최에서 제안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해결하는 등 노력을 통해 증액투자 및 신규투자를 적극 유도하였다.

[표4-9] 중국지역 주요 투자유치 활동

중점 지역	사업명	추진내용
화북	베이징 IR 개최(5.31)	300개 잠재투자기업 대상 주요 프로젝트 소개
	방한 투자사절단 파견(5.19~5.22)	중국 아담집단, 셔우창그룹 등 6개사 방한 투자 사이트 시찰 및 관계자 면담
	유관기관 연계 IR 개최(5.21)	HMC 투자증권 연계 상장사 대상 프로젝트 소개
	새만금, 경기도, 제주 IR 개최(8.25)	한국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 소개
	국가 해외투자매어 국가홍보관 운영(11.8~9)	IK 및 제주도청, 여수엑스포 홍보관 운영
화동	현지 로컬 로펌 연계 한국투자설명회 개최(3.9)	부동산, 신재생 등 한국의 주요 프로젝트 소개
	화동지역 유력 잠재업체 TFT(3.9~11)	주요 유력투자가 방문을 통해 조기 투자유도
	상하이, 영파, 이우 투자환경 홍보부스 운영(4~6월)	중국의 도시별 박람회 연계 한국 투자환경 홍보
	항저우 알리바바 상품교역회 홍보부스 참가(9.9~11)	한국의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 홍보
	화동 4개 도시 순회 IR(12.12~12.16)	난징, 항저우, 우시, 창저우 투자가 타겟팅 IR 개최
화남	중국 투자유치설명회(4.27~4.29)	TCL 등 투자가에 대해 인천, 광양, JDC 프로젝트 소개
	평택형 포트세일 설명회(5.31~6.2)	중국 물류관련 기업 대상 평택항만 소개
	북간성 사면 연계 투자 IR 및 잠재투자가(12.9)	화교자본 유치를 겨냥한 한국 투자환경 홍보

그리고 최근 원유값 급등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2011년 9월 기준 약 1조 7천억 달러) 적극적인 해외투자예 나르고 있는 중동의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중동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IR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0월 발간했던 중동 국부펀드의 동향 및 투자유치 전략을 분야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하여 중동 투자유치활동을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한-아부다비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중동의 국부펀드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M&A 타겟 매물, PE/VC, 지역개발 프로젝트 소개 등을 통해 대한 투자를 유도 했다. 특히 동 포럼에는 아부다비 국부펀드 외에도 주요 공공기관 및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 UAE 철도 프로젝트 상담회”를 병행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UAE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11월에는 중아CIS팀의 한-중동 비즈니스사업과 연계하여 “한-중동 유망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동 주요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에서 참석한 투자가 약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망 중견·중소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투자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4-10] 국부펀드 대상 주요 투자유치 활동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유치활동	한-아부다비 투자협력포럼	주요 M&A타겟매물, PE/VC 투자유치, UAE철도프로젝트상담회
	한-중동 유망기업설명회	한국중견, 중소기업 투자프로젝트 소개
조사연구	중동자본투자유치 활동전략 및 로드맵	중동오일머니, 국부펀드 투자유치 단계별 전략

이 외에도 신흥국으로 부상하며 활발한 해외투자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러시아와 인도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였다. 러시아 투자연구회, 인도 투자연구회를 발족하여 학계, 업계의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한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 연구하였다. 동 연구회에서는 러시아와 인도의 해외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러시아 및 인도 투자유치 IR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국가 IR을 개최하였다. 제조업, IT, 지역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투자가들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투자가들에게 제공하였다

11월 뭍바이 IR에서는 인도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및 제조업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타타, 마힌드라 등 한국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투자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4. 투자가 행정지원 서비스 실적

Invest KOREA에는 2011년 기준 총 15개 기관(정부부처 9개, 지자체 4개, 법원행정처, 유관기관 각 1개) 20명의 파견관이 외국기업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과 IK의 업무협조 강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유치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1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출입국 관련 민원 등 직접처리민원이 3,638건이고, 법인설립등기 지원이 9건으로 총 3,647건을 기록하였다.

[표4-11] 외국인직접투자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직접처리민원	3,511	5,629	4,170	3,945	3,638
현물출자완료확인	8	4	7	4	1
출입국 관련 9종 (체류 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	3,493	5,619	4,150	3,941	3,636
사업자등록신청	10	6	13	—	1
법인설립등기 지원	13	4	9	10	9
합계	3,524	5,633	4,179	3,955	3,647

자료원 : Invest KOREA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신고, 외투기업 관리, 투자통계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 통계 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707건 136억 74백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Invest KOREA를 통한 접수는 374건 74억 50백만 달러이다.

[표4-12] 외국인투자신고 접수현황

(단위: 건, US\$백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559	10,514	3,744	11,705	3,131	11,484	3,109	13,071	2,707	13,674
I K	399	3,618	328	2,913	339	5,936	362	8,717	374	7,450
비중	11.2	34.4	8.8	24.9	10.8	51.7	11.6	66.7	13.8	54.5

주 : IK(본사 및 해외 무역관)를 통한 투자신고접수 건수 및 금액의 비중을 의미

자료원 : Invest KOREA

2011년 말 기준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14,271건이며 이 중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 수는 10,220개사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11년 말 기준 법인폐업 등으로 직권 말소한 기업 수는 600여 개이다.

[표4-1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현 존	19,471 (13,873)	21,335 (14,469)	19,150 (13,178)	19,768 (13,620)	20,559 (14,301)
등 록	14,768 (10,369)	16,429 (10,969)	12,931 (9,344)	13,780 (9,662)	14,271 (10,220)

주 1) Invest KOREA 등 수탁기관에서 접수한 전체 기업수이며, ()는 법인 기업 수임.

2) '현존'은 외국인투자신고는 했으나 아직 외투기업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를 포함한 수치임

3) 2011.12.31일 600여 개사 직권 말소

자료원 : Invest KOREA

5. 외국인투자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실적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6년 11월에 개관한 외투기업 창업지원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가 정착지원 인큐베이션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외국인투자기업(7~9층)이 입주해 있으며, 외국인 투자종합상담센터(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와 은행, 회계법인 등의 비즈니스센터, 외국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이 함께 위치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시 부터 2011년 12월까지 IKP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10개 업체이며 이 중 93개 기업이 IKP를 졸업하였으며, 27억 달러의 투자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표4-14]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신규업체(개사)	23	20	14	23	16	14	110
졸업업체(개사)	—	17	19	17	22	18	93
투자신고액(US\$달러)	942,587	582,234	76,775	593,576	502,420	71,548	2,769,140

자료원 : Invest KOREA

6. 투자가 생활정착 지원 실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2006년 11월에 개관한 ISC(Investors Support Center)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행정실과 통합하여 2010년 8월 투자종합상담센터(Investment Consulting Center)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컨설팅팀을 흡수하여 전문 컨설팅 인력을 확보, 확대 운영 중이다.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상담을 지원하는 ICC는 비자,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분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가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병원, 교육기관 동행 등 일일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4-15] 분야별 상담 실적

[단위 : 건]

분야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활상담	71	1,809	3,601	3,902	3,193	4,351
일일비서서비스	—	—	6	22	52	28
총 계	71	1,809	3,607	3,924	3,245	4,379

자료원 : Invest KOREA

7.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실적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충처리 사례들이 축적되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2011년도 총 403건의 외투기업 고충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13건, 행정처리 63건, 흠닥터 처리 327건의 고충내역이 처리되었다.

[표4-16] 2007-2011 외투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단위 : 건]

연도별	처리현황		처리유형		
	건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흠닥터처리
2007	370	4.5	12	60	298
2008	353	-4.5	20	64	269
2009	365	3.4	24	62	279
2010	385	5.4	13	38	334
2011	403	4.7	13	63	327
합 계	1,876		82	287	1,507
(비중)	(100%)	—	(4.4%)	(15.3%)	(80.3%)

주 : 고충처리 접수는 유형별로 정부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한 『행정 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한 『흠닥터처리』로 구분

자료원 : KOTRA

외투기업 고충사항 총 403건 중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세세무 43건 투자인센티브 76건, 투자제도, 절차 31건, 관세무역 26건, 노무인사 27건 등이며, 외투기업 711개 처에 대하여 흠닥터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표4-17] 2007-2011 외투기업 고충처리 분야별 동향

[단위 : 건, %]

분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11 증감률
조세세무	62	44	35	50	43	-14.0
노무인사	24	17	37	24	27	12.5
투자제도,절차	37	37	33	37	31	-16.2
관세무역	35	28	22	27	26	-3.7
투자인센티브	42	51	39	50	76	52.0
금융외환	25	11	13	7	7	0.0
비자출입국	21	26	24	23	30	30.4
건설(건축,토지)	22	12	18	13	14	7.7
영업유통,광고	13	15	11	14	5	-64.3
공장입지,신증설	15	24	17	24	40	66.7
민간분쟁	10	9	9	8	12	50.0
기준,인증,검사	10	11	22	15	18	20.0
보험복지	3	2	2	2	1	-50.0
환경	0	0	1	3	6	100.0
도로교통	3	2	0	0	0	0.0
생활여건	3	5	4	3	2	-33.3
전력용수	0	1	1	3	4	33.3
차별대우	0	0	0	1	0	-100.0
기타	45	58	77	81	61	-24.7
합 계	370	353	365	385	403	4.7

자료원 : KOTRA